

28일 Market Index			
↓ 코스피	8185.29	↓ 코스닥	1104.36
	(-43.41)		(-28.77)
↑ 금리 (연이자율)	3.766	↑ 환율 (원/달러)	1503.00
	(+0.055)		(+1.80)



## 전쟁 통에도 韓 GDP 나홀로 독주 지속가능 성장 ‘골든타임’ 만들어야

창간 24th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리부트 코리아**

1분기 주요국 중 성장률 1위 ‘남보’ 이스라엘 등 6개국 경제 ‘마이너스’ 韓, 수출실적 세계 5위로 3계단 ↑ 반도체 외 산업이 받쳐주는게 관건

전쟁통에 날아든 남보가 있다. 한국 세계 랭킹의 급상승 소식인데, 그것도 32개 주요국 중 경제성장률 1위다. 코스피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대비 불과 5개월 만에 100% 가까이 뛰었다.

경제가 아우토반을 내달리는 형국이다. 관건은 지속가능 여부다. 일단 중동 사태만 해도, 국내 실물경제가 받는 타격이다 소더디게 드러날 수 있다. 하반기 이 시간대를 두고 도처에 파고들 개연성 인 것.

청와대 역시 흐름의 일관·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잠재성장률 관련해 “지금 우하향하다가 우상향으로 살짝 올라왔다”며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나라 경제는 어쨌든 재도약의 계기를 마주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기성장률 집계 마무리 돼 간다. 지난 수년간은 주요국 중 성장률 중위나 중하위권이 더 익숙했기에 현재의 선두 자리가 무척이나 생경하다는 견해도 많다.

올해 1분기 OECD 회원국 29국 중 이스라엘(-0.8%) 등 6개국 경제는 후진했다. 성장률 0%대도 22개국이나 된다. 우리나라

라가 치고 나갔고 단독으로 1%대(1.7%)를 쟁취했다. OECD 29개국 평균은 0.4%, 주요 7개국(G7) 평균은 0.4%, 유럽연합(EU) 평균은 0.2%에 그쳤다. 회원국 총 38곳 중 9곳의 발표만 남겨뒀다.

28일 기준 주요 20개국(G20) 협의체의 3곳(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중국)까지 합해, 포함 32개국 중 한국이 최상단에 있다.

또 올해 1분기 수출실적 세계 5위에 자리했다. 작년 동분기엔 8위였다. 올해 3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도 역대 최대(738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 독주는 어쩌다 터진 단발성 솔로포일지, 아니면 중장기 반등의 예고편이 될지 관심을 모은다.

당장 2분기 수치부터 이목이 집중된다. 서아시아발 여파가 경제 전반에 고스란히 녹아드는 첫 분기이기 때문. 최근 연간 성장률 3%대를 점치는 국내외 기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호조의 지속 여부는 4~6월 기간 판가름 날 수 있다.

반도체 외 다른 산업부문에서 받쳐 주느냐가 핵심 관건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반도체와 반도체 이외 제조업의 경기 양극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업종 생산능력지수는 5년 사이 80%포인트(p) 향상됐다. 반면 비반도체 부문의 해당 지수는 14.0%p 뒷걸음질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

구실장도 “반도체 등 몇몇 산업 아니면 회복세를 실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소비를 가로막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크다. 원화 가치의 곤두박질이 물가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10%가량의 상승이 소비자물가를 0.3~0.5%p 밀어 올린다고 했다. 원화는 미 달러화뿐 아니라 여타 주요 통화 대비로도 약세다. 영국 돈 1파운드가 2000원을 넘어섰다. 구매력 저하가 뚜렷하다. 민간소비 등 내수는 살아나지 않은 채 수출이 지탱하는 GDP는 한계가 분명 있다.

정부는 중동전 충격의 완화를 우선 순위로 뒀다. 이에 적극재정 기조를 취하겠다고 했다. 재정을 적재적소에 과감히 투입해 민생 안정·내수 진작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또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지방주도성장 등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추진 과제로 내걸었다.

국내총생산 시가총액은 1년 만에 다섯 계단 뚫 세계 8위에 올라 있다. 또 그만큼, 이유 여하 막론하고 국민 기대치도 커지고 있다.

지난 1분기 미국과 일본 GDP는 각각 0.5%씩 증가했다. 한국은 이보다 1.2%p 더 늘었다. AI 시대를 맞으며 어느덧 중년을 향하는 21세기. 경제대국과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기의 갈림길에 섰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창간 24주년 기획기사 2~8면〉



오늘부터 6·3지방선거 사전투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직원이 기표봉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

## “삼성, 성과급 의결은 위법” 주주단체, 무효소송 예고

韓기업 설계구조 방식 전환 분기점 SK하이닉스·LG전자 등도 영향권 투표중지 가져본 결과 이후 소송 진행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연동 성과급이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라는 주주단체의 소송이 재계 전반의 지배구조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운영하는 SK하이닉스는 물론 성과 연동 방식이 다른 LG전자까지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소송 결과가 한국 기업 전체의 성과급 설계 방식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D 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이 영업이익에 연동된 위법 배당에 해당한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예고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이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상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송 제기 시점은 동행노조의 투표 중지 가져본 결과 이후에 진행될 전망이다. 주주명부 열람은 삼성전자가 법무팀 법률 검토를 이유로 연기를 통보하면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운동본부는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와 연대해 명부 확보 즉시 기관투자를 결집하고 임시주총 소집 요구 등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동행노조의 법적 대응도 계속되고 있다. 수원지법은 가져본 신청 심문을 29일 열기로 했다. 투표가 이미 27일 종료돼 중지 효력은 소멸했으나 동행노조는 투표 무효 확인 소송 등 본안 소송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안 효력정지 가져본 전환 여부가 주목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 상법도 변수다. 개정 상법은 임직원 보상 목적 자사주 보유에 매년 정기주총 승인을 요구하고 있어 삼성전자의 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이미 올해 3월 정기주총을 마친 만큼 이번 성과급 지급용 자사주 처분의 적법성이 추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파급력은 삼성전자에 그치지 않는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동일한 법적 쟁점에 곧바로 노출된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는 HD현대중공업(30%), LG유플러스(30%), 삼성바이오로직스(20%), 현대차·기아(순이익의 30%) 등 전 업종으로 번졌고, 요구 규모만 합산해도 10조 원 안팎에 이른다. LG전자 역시 영업이익 직접 연동 방식은 아니지만 법원이 ‘회사 이익 기반 대규모 성과급 지급’ 자체를 주주 의결 사항으로 판단할 경우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기준금리 2.50% 유지... 향후 ‘인상’ 무게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물가상승 압력 등 고려 인상시기 결정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다만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동시에 상향하고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명시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는 한층 약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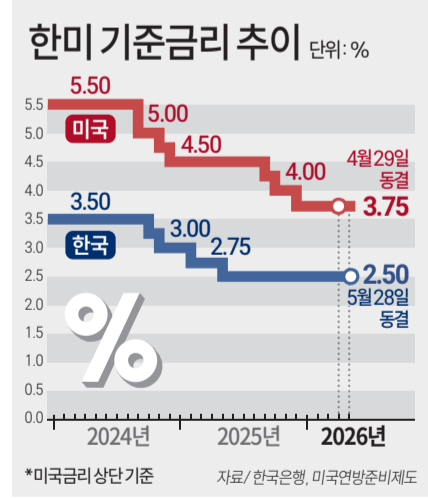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50%)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 반면 성장세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동사태 전개와 파급 영향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현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영향을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통화정책방향에 따르는 대목은 향후 정책 방향이다. 금통위는 앞으로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2면〉

인상 소수의견도 나왔다. 이번 결정에 금통위원 5명이 찬성했지만 장용성 위원과 유상대 위원은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제전망도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올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투자 확대, 양호한 소비 흐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물가 전망도 상향됐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근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1%에서 2.4%로 각각 올렸다. /김주형 기자 gh471@



▲이재명 대통령, 3군 사관학교 통합 신속 추진 지시 /사진 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고품질 데이터 확보해 AI강도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민주·개혁 진보 세력 더 결집해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자 “안전 예방에 재난관리기금 집행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 “서울마저 내주면 합리적 보수 소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연내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 반도체 패권경쟁 격화... 韓, 삼성·SK 중심 퀀텀점프 기대

## 산업 경쟁력 시험대

반도체, AI 시대 핵심요소 자리 韓, 고대역폭메모리 시장 주도 주요국 정책 지원 등 추격 나서

반도체 산업이 단순 기업 간 경쟁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정부들이 산업 정책과 무역정책까지 동원해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나서면서 반도체는 이제 경제안보와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특히 AI 시대 핵심 부품으로 떠오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주도권 경쟁의 중심에 서 있다.

### ◆ HBM 중심으로 재편되는 AI 반도체 시장

삼성전자는 HBM4와 첨단 패키징, 파운드리 역량을 결합한 '턴키 전략'을 앞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SK하이닉스 이천 M16 전경.

워 AI 반도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AI 반도체 패키지에 들어가는 로직 칩과 HBM, 주변 D램 등을 한 회사에서 통합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경쟁력이다. 업계에서는 AI 가속기용 로직 칩과 HBM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사실상 삼성전자가 유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한 이후 AI 메모리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이어가며 글로벌 고객사들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차세대 제품인 HBM4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체제까지 구축했다. 특히 TS MC와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고객사별 요구에 최적화된 '커스텀 메모리' 솔루션을 강화하며 HBM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또한 샌드스크와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고대역폭 낸드플래시(HBF)의 국제 표준화 작업에도 협력하며 AI 메모리 생태계 확대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 ◆ 미래 반도체 수요 대응... 삼성·SK 대 규모 투자 이어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급 부족과 AI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능력 확대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 삼성전자, '턴키 전략' 앞세워 평택캠퍼스 4공장 연내 완전자동

SK하이닉스, 차세대 솔루션 제시 용인 산단 반도체 웨이퍼 4개 건설 예정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에 약 50조원을 투입해 건설 중인 4공장(P4)을 연내 완전 가동할 방침이다. 당초 계획보다 6개월 가량 가동 시점을 앞당겨 AI 메모리 시장 확

대와 HBM 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P4 상동(Ph1) 라인을 오는 7월, 하동(Ph2) 라인을 11월 각각 임시 사용 승인받아 순차 가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오는 8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2단 건물 착공에 나서는데 생산능력 확대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2기 2단 건축 계획까지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장기 생산 인프라 확대에도 본격 나서려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6만㎡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최첨단 반도체 웨이퍼 4개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중 첫 번째인 1기 2단은 2개의 골조와 총 6개의 클린룸으로 구성되는데, SK하이닉스는 1기 2단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골조 1 단계에 대해 지난해 2월 기초공사를 시작한 후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중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현재 HBM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지만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기업들의 추격도 빨라지고 있다"며 "AI 반도체 시장 선점을 둘러싼 미국·중국·대만·한국 간 패권 경쟁 역시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KB금융그룹 | 국민의 희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KB증권 MTS

# 개비마블 KB마블

금리 때마다 늘어나길

**투자실력부터 자산성장까지 시작은, KB마블로부터!**

매일 아침 1분 정보  
오늘의 폭

전문가의 투자 전략  
PRIMECLUB

한 눈에 보는 ETF 흐름  
ETF 인사이트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2277호(2026.05.14~2027.05.13)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주식 주식거래 시 수수료 (비대면계좌)는 HTS 0.014%~0.015%, 모바일 0.119%~0.12%(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KB증권**

## 사상최대 수익 확보 기회 노조 리스크 해소 등 변수

### 글로벌 반도체시장 지속성장 전망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요해져

삼성전자 파업위기가 일단락된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재 양성부터 인프라 확보, 공급망 안정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28일 세계 최대 IT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와 IC인사이드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산업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한국은 사상 최대 수익 기회를 맞고 있다. 특히 HBM(고대역폭메모리)과 서버용 D램·낸드플래시 수요가 급증하면서 메모리 업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미국 투자리서치업체 멜리어스리서치(Melius Research)는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강세가 2030년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AI 모델이 6~12개월 단위로 고도화되면서 연산 수요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기회를 이어가기 위해선 인재 확보가 시급하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인력 수요는 2031년 30만 4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대학과 직업계고 등에서 배출되는 인력은 연간 5000명 수준에 그친다. 감사원도 교육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이 모두 달성되더라도 수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카이스트 등 주요 대학과 계약학과·산학협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장 수요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기업으로 인재가 쏠리면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중소·중견 반도체 업체들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인프라 병목도 해결 과제다. AI 반도체 생산에는 막대한 전력과 용수가 필요하지만 인허가 지연과 지역 반발 등으로 생산 기반 확충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전력·용수 부족과 2나노 공정 전환의 기술적 복잡성을 한국 반도체 산업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도 변수다.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EAR)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최대 D램 업체인 창신메모리(CXMT·ChangXin Memory Technologies)의 추격도 빨라지고 있다. CXMT는 최근 DDR5 양산과 AI 서버용 메모리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AI 시대 반도체 경쟁은 단순한 기술 싸움을 넘어 인재·전력·공급망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국가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강국을 넘어 AI 인프라 핵심 공급자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중국의 추격을 막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 생산적 금융·반도체 호황... 부동산 쓸림 자금, 증시로 재배치

## 투자자금 이동 본격화

부동산 편중 완화에 자금흐름 변화  
반도체 호황 타고 국내 증시 강세

예적금 이탈분, 대기성 자금 전환  
M2 늘며 증시 주변자금도 확대

위험자산 선호에 신용대출 증가  
분산·절세 전략 병행 등 필요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흐름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운용주기가 긴 예·적금에 묶였던 자금은 투자를 위한 대기성 자금으로 이동했고, 부동산에 집중됐던 투자자금도 증시로 옮겨가고 있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배치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국내 증시의 급상승이 맞물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이달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의통화(M2) 평잔은 413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과 비교해선 0.4% 늘었고,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선 5.6% 늘었다. 3월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가던 지난 2023년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광의통화(M2)'는 시중에 유통되는 자금을 말한다. 수시입출금통장이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입금된 돈, 만기 2년 미만의 예·적금, 수익증권 등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이 광의통화에 해당한다.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지면 경기가 활성화되며, 주식을 비롯한 투자상품 가격도 상승한다. 은행에 돈을 장기간 묶어두기보다,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머니무브'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과거의 단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 ◆ '생산적 금융'과 '반도체 호황'

정부는 작년 9월 차세대 금융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제시했다. 부동산 등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 쏠린 자금을 실물 경제로 재배치한다는 목표다.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금융권의 자금이 이동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이 강화됐으며, 기업들도 주주환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산적금융'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를 일부 해소한 가운데, 세계적인 반도체 시장 호황은 국내 증시의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국내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1년간 각각 500%와 1000%가 넘는 가격 상승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초 2400포인트 수준이었던 코스피지수는 최근 8000을 돌파해 9000을 넘보고 있다.

낮은 예·적금 수익률도 자금흐름이 변화한 이유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 동안 국내 은행들이 취급한 정기예금의 금리 평균은 연 2.85%(1년만기 기준), 적금금리 평균은 2.72%(1년만기, 단리 기준)에 불과했다. 예·적금의 기대 수익률이 낮은 만큼, 투자자들은 자금을 묶어두기보다는 위험자산 투자를 늘리

고 있다.

'자금흐름'이 바뀌면서 자금은 국내 증시로 몰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대기자금에 해당하는 투자자예탁금은 올해 초 89조원에서 최근 130조원을 넘겼고, 증권사의 '과잉통장'에 해당하는 CM A도 16조원 넘게 늘었다. '빚투' 수요도 늘면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대출) 사용 잔액은 41조원을 넘겼다.

## ◆ 위험 분산·절세 등 '똑똑한 투자'

전문가들은 저금리·저성장 국면에서 자산증식을 위한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위험분산'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위험자산은 언제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자산규모나 수입, 노후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연금저축·개인형IRP 등 절세통장을 활용한 '절

세 전략'도 중요하다. 금융상품을 운용해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절세는 곧 이익 확대로 이어진다.

ISA는 다양한 투자상품을 한 계좌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금융 상품이다. 기본형을 기준으로 만기 시 200만원의 투자소득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절세혜택을 강화한 청년형ISA와 국민성장ISA도 6월 중 출시된다. 기존 ISA 대비 납입 한도와 세제혜택을 강화했으며, 기존 ISA와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두 상품을 합쳐 연 900만원의 납입액까지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두 상품을 30년간 운용하면 최대 4000만원이 넘는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주식에는 직접 투자할 수 없으며 펀드·리츠·예금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안성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 양도세 부담에 매물 잠기고 공급난 속 전월세 부담 커져

### 불안한 부동산 시장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전역 확산  
전셋값 상승폭 10년여 만에 최고  
월세 전환 늘며 임대료 압박 확대

부동산 시장이 매매와 전세, 월세 모두 들쭉거리면서 불안해지고 있다. 집값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고, 전·월세는 공급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로 상승폭이 가팔라졌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8일 기준 1.12%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마이너스(-)에서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물론 상승폭도 크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2.11% 올랐고, 서울은 상승률이 3.42%에 달한다. 다주택자 매물로 주춤했던 집값은 중과 유예가 끝나자마자 서울 전역이 올랐다.

임대차 시장은 공급부족 여파가 더 컸다.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18일 기준 1.78% 올라 매매가격 상승률을 앞질렀다. 수도권이 2.6%, 서울이 3.2% 상승했다. 특히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29% 올라 지난 2015년 11월(0.31%) 이후 10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팔면 양도세, 보유하면 보유비용이라는 구조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는 단기 매도보다 보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 부담과 보유비용이 임대료 인상 압력으로 전가될 수 있으며, 실제 임대차 시장에서는 이미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물량 부족 우려에 전세수급지수는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절대적인 공급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신규 입주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 증가 등으로 전세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공급 부족이 심화하면서 전세수급지수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도 2021년 이후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일반가구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주택시장 경기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0% 이상이 올해 전세시장이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성진 기자 smahm@



metro

## PLUX

Cool한 여름준비

# 여름준비

당신의 모든 공간을 시원하게

5/27 - 5/31

롯데하이마트가 만든 일상가전 PLUX

PLUX 여름 가전 컬렉션으로 완벽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부드러운 바람, 간편한 관리

인버터  
스탠드 에어컨

1,370,000원

강력 제습, 넓은 공간 보송하게

18L 대용량  
제습기

299,000원



인버터 룸 에어컨  
(18.7m<sup>2</sup>)

599,000원



Easy 라이트  
실링팬

389,000원



초경량 BLDC  
핸디형 선풍기

9,900원



35cm 초미풍  
선풍기

44,900원

플렉스는 전국 롯데하이마트 매장과 온라인몰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전이 쉬워지는 곳

LOTTE HIMART

# 시장 허리 사라진다... 장기 생존전략 새판 시급

## K-푸드 성장세 분수령 글로벌 체질 개선 박차

### 유통가 'K자형 양극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 전망' 백화점, RBSI 100 상회 '유일' 소비자심리지수 기준치 밀돌아 중소형 슈퍼 등 중저가 브랜드 직격탄



서울 서초구 하나마트 양재점을 찾은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유통 시장이 거대한 분수령에 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전선은 전례없는 호황을 이어나가지만 민생과 직결된 내수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거시경제의 온기가 골목상권과 유통가 전반으로 흐르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 현상'이 굳어지며 상대적인 박탈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전통 소비 방식과 유통 구조가 무너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내수 시장이 직면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재도약을 위한 리부트(Reboot) 전략을 모색해 본다.

#### ◆ 허리가 사라진 유통 시장

대한상공회의소의 '2026년 유통산업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내 소매유통 시장 성장률 전망치는 0.6%대로, 최근 5~6년 내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도 하락세다. 올해 1분기 RBSI는 79로 전분기(87)보다 하락한데 이어 2분기 RBSI 역시 80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RBSI가 100 미만이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분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업종 별로는 백화점(115)만 유일하게 100을 상회했고, 편의점(85), 슈퍼마켓(80), 대형마트(66)는 부진했다. C-커머스와 경쟁, 배송비 부담 증가 등으로 고전하는 온라인 쇼핑(74)은 유일하게 전분기 대비 전망치가 줄어들었다.

소비자들의 구매력 저하도 큰 걸림돌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들어 지속 하락하며 지난 4월 99.2로 1년 만에 기준치(100) 아래로 추락했다.

유통 시장은 이제 '초저가 실속형'과 '초고가 프리미엄'이라는 두 개의 극단으로 찢어졌다. 이른바 'K자형 소비 양극화'다.

K의 윗단에선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등 일명 '에루샤' 명품 매장으로 소비가 몰려들었다. 대표적인 예로, 신세계 강남점은 지난해 3조671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3년 연속으로 '3조 클럽'을 달성했다. 단일 유통 시설(점포 1개) 기준으로 연간 매출 3조 원을 넘어선 것은 대한민국 유통 역사상 최초 기록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1월 7일 만에 누적 3조원을 돌파하며 전년의 기록을 3주 앞당긴 최단기 기록을 경신했다. '에루샤'를 필두로 한 명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했고, 상위 1%의 VIP 매출 비중은 50%에 달했다.

반대로, K자의 아랫단에선 '초저가 경쟁'이 치열하다. '실속형 가성비 소비'의 대명사가 된 '다이소'는 최근 매년 기록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유통업계의 절대강자로 자리매김했다. 다이소는 지난 2023년 매출 3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2년 만인 2025년 매출 4조 원을 넘어 4.5조원 시대를 열었다. 2015년 매출 1조 원을 처음 돌파한 이후 약 10년 만에 매출 규모가 4배 이상 성장했다.

반면, 전통적으로 유통가의 허리를 지탱하던 중저가 로드숍,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중저가 백화점 브랜드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중산층 이하의 가구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상품을 찾아 온라인 최저가와 초저가 매장으로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앞으로도 이 같은 양극화 현상

외국인 관광객 모시기 경쟁 치열 백화점, 세금환급 등 서비스 제공 올리브영, 글로벌 특화매장 운영 편의점, K-문화 체험 공간 조성 유통그룹,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 5분위 비율(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은 5.59배로 전년 동기(5.28배)보다 확대되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 ◆ 유통의 판을 새롭게 짜라

유통 업계도 시장의 판을 완전히 새롭게 짜는 '리부트(Reboot)'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기존 내수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비와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가장 먼저 외국인 관광객 모시기 경쟁에 불이 붙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외래 관광객은 476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했다.

더현대 서울, 신세계 본점 등은 외국인 전용 컨시어지와 라운지를 확대해 세금 환급, 짐 보관,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사와 카드사 등과 협업을 통한 마케팅에도 적극 나선 상태다.

외국인 관광의 필수 코스가 된 올리브영의 경우, 올리브영N 성수에 이어 지난 3월 두번째 초대형 글로벌 특화 매장 '센

트럴 명동 타운'을 열었다. 글로벌 특화 매장에는 영어·중국어·일본어 가능 직원과 세금 환급 키오스크를 배치하는 등 외국인 고객 잡기에 본격 뛰어들었다.

편의점은 TV 드라마, 유튜브 등에서 보는 K-문화 체험 공간을 조성, 외국인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CU는 주요 상권에 수백 종의 봉지라면을 벽면 가득 전시한 '라면 라이브러리'를 조성, 한강에서 먹는 즉석조리기로 직접 끓여 먹을 수 있게 만든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GS25와 세븐일레븐 등은 아이돌 K팝 앨범 및 포토카드, 공식 굿즈를 전면에 배치했다.

유통 그룹들은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도 확대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베트남을 글로벌 사업의 핵심 전략 거점으로 삼았다. 하노이 롯데센터에 이어 2023년 프리미엄 쇼핑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를 열고, 호치민 지역에 대형 복합단지도 개발 중이다.

신세계그룹 이마트24는 지난해 말레이시아에 100개 매장을 확보했고, 이어 캄보디아·인도·라오스로 진출하며 국내 편의점 '최초' 타이틀을 잇달아 확보하고 있다.

GS리테일은 GS25 베트남(400여개점) 몽골(280여개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2027년까지 글로벌 점포 1000~1500개점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있다. CU 역시 몽골(약 530여개), 말레이시아(약 160여개점) 등에 이어 미국 하와이에 'CU 다운타운점 1호점'을 열며 국내 편의점 최초로 미국 유통 시장에 진출했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내수 부진은 단순한 경기 침체라기보다 인구 구조 변화와 소득 불균형이 맞물려 발생하는 구조적 전환기로 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유통의 영토를 국경 너머로 확장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것만이 K자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metro

내수 시장의 할인 경쟁 심화와 중저가 소비 축소로 성장이 정체되자 해외 시장에서 돌고구를 마련하려는 이른바 '글로벌 리부트(Reboot)' 전략이 업계의 생존 화두로 부상했다.

CJ제일제당은 대표 브랜드 '비비고'를 앞세워 북미 만두 시장 점유율 1위를 공고히 한 데 이어, 유럽 및 호주 등 신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식품 사업 부문에서 사상 최초로 해외 매출 비중이 50%를 돌파하는 이정표를 세우며, 내수 중심 기업에서 글로벌 틈타어 식품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심은 미국 제2공장 가동 안정화를 바탕으로 월마트, 코스트코 등 현지 메인스트림(주류 유통 채널) 진입을 전 점포로 확대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30년까지 전체 매출 중 해외 비중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리부트' 업계 생존 화두 북미·유럽 등 신영토 확장 속도 외국인 관광객 수요 맞춰 재편

'불닭볶음면' 신화를 쓴 삼양식품은 이미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의 70%를 넘어 서며 명실상부한 수출 중심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급증하는 글로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동을 시작한 밀양 제2공장을 중심으로 미주와 유럽 시장을 겨냥한 수출 물량 조달 가속화에 착수했다.

K-푸드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국내 유통 매장의 지형도 역시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맞춰 급속히 재편되는 모양새다.

주요 편의점 브랜드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은 라면 특화 매장을 비롯해 즉석식품 등을 매장 전면에 전진 배치하고 있다.

헬스앤뷰티(H&B) 스토어인 올리브영과 주요 대형마트 매장 역시 명동, 홍대, 제주의 주요 관광 상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특화매장'과 전용 카테고리 리존을 신설·확대하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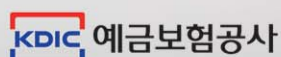
/신원선 기자 tree6834@ metro



# 두 배로, 더 든든하게 예금보호, 1억원까지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원금과 이자를 포함)까지 보호됩니다.

- 2025년 9월 1일 이전 가입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
- 퇴직연금(DC, IRP 등),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각각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



# 답이 있다면 지구 반대편까지



SK 선대회장 | 최 종 현

- 1979 | 2차 오일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산 5만 배럴 원유 공급 확보
- 1984 | 무자원 산유국 첫 발견, 북예멘 마리브 광구 유전 발견
- 1998 | 아시아 지역 새로운 도전, 베트남 15-1광구 석유 개발 시작
- 2010 | 페루 LNG 가스생산, 수송, 수출 수직계열화 완성
- 2014 | 안정적인 LNG 확보를 위한 미국 우드포드 가스전 지분 투자
- 2018 | 독자 운영 및 자체 기술로 남중국해 17/03 광구 원유 발견 성공
- 2022 | 동남아 자원 거점 확대, 말레이시아 SK427 광구 운영권 확보
- 2025 | 자원 영토 확장, 인도네시아 3개 탐사 광구 지분 확보
- 2026 | 호주 바로사 가스전 LNG 첫 도입, 20년간 안정적 공급

작은 가능성에도  
수천 미터를 파 내려가고  
먼 미래를 위한 일일지라도  
주저 없이 바다를 건넌습니다

지난 6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의 답을 찾아갑니다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 증시 웃는데 실물은 한숨... “자본시장, 생산적 금융 견인해야”

## 한국 경제 양극화

1분기 수출 43.5%, 상위 5대 기업 실적·밸류업에 투자심리 확대 반도체 풀림 부담... 시장 과열 우려

한국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수출액(2199억달러)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상위 5대 기업의 비중이 43.5%에 달했다. 1년 전(28.7%)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심지어 1분기 전체 수출 증가액(603억달러)의 82.8%가 상위 5대 기업 차지였다. 6~100위권 기업의 수출 증가액은 전체의 9.6%에 불과했다. 5대 기업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09.1% 늘었지만, 상위 100대 기업 수출 증가율은 52.8%에 그쳤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가져온 전형적인 'K자형 양극화'다. 시장에서는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기



정은보 한국거래소(KRX) 이사장(맨 가운데)이 지난 26일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직원들과 함께 코스피 사상 최초 8000포인트 돌파 기념으로 축하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자본시장으로 흘러든 돈이 혁신기업과 장기투자자로 흐르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 ◆증시 따로 실물 따로

코스피 8000선을 넘어서는 증시의 열기와 반대로 실물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국

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동행 지수 순환변동치는 100.1을 기록했다. 반면에 선행지수는 103.5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두 지표 간 격차는 3.4포인트로, 2009년 12월(3.4p) 이후 16년 3개월 만에 최대치 수준이다. 코스피 상승으로 미래 기대를 반영하는 선행지수는 높

아졌지만, 현재 생산·소비·고용을 보여주는 동행지표는 부진해 두 지표 간 간극이 그만큼 벌어졌다는 뜻이다.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8% 증가했지만, 휴대전화 신제품 출시로 통신기기(30.1%) 등 수치가 개선된 탓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자본시장과 실물경제 흐름이 엇갈릴 경우 경기 판단에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행지수 해석 과정에서 금융시장 영향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중기 대출 연체율, 대기업 약 8배 R&D·스타트업 등에 자금 흘러야 “신뢰받는 자본시장 구축 필요”

내수 부진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체 원화 대출 고정이하연(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의 부실채권·NPL) 비율을 단순 평균 내면 0.42%로 집계됐다. 전월(0.38%)보다 0.04%포인트, 전년동월(0.40%)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대출 주체별로 보면 가계가 0.26%, 기업은 0.54%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은 0.63%로, 대기업(0.31%)의 두 배에 달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대기업은 0.04%포인트 하락했고, 중소기업은 0.09%포인트(p) 상승했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에 취약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포함된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연체율 통계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양극화가 드러난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평균 0.44%로, 한 달 사이 0.03%포인트 높아졌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연체율은 3월 말 0.58%에서 4월 말 0.65%로 0.0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대기업 연체율은 0.08%로 한 달 사이 0.03%포인트 낮아졌다. 중소기업 연체율이 대기업의 8배에 달하는 것이다.

자금이 실물이 아닌 증시로 흘러면서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는 진단도 있다. 한국은행의 '2026년 3월 통화 및 유동성'을 보면 3월 광의통화(M2·평잔 기준)는 4132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8조5000억원(0.4%) 증가했다. 특히 초단기 금융투자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가 12조4000억원 늘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주식 거래가 늘면서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대기성 자금도 증가해 단기 자금 운용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도 배당 지급을 위한 기업 자금 유입 등으로 6조5000억원 증가했

다. 경제 주체별로는 비금융기업이 34조 9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 ◆신뢰받는 자본시장 구축과 생산적 금융

우리 경제는 성장이 더디고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만 가격이 치솟아 부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을까?

경제 전문가들은 자본이 생산성 높은 곳에 충분히 투자되지 못하고,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자산시장에 지나치게 흘러들어가서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를 집약해 한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중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의 원인을 분석했다. 중요소생산성은 노동이나 자본 같은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성장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의 중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한 이면에는 기술 진보의 지체뿐 아니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동일한 자본과 노동으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상황과 같다. 이러한 비효율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오히려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고생산성·자원 과소 보유’ 현상을 중심으로 심화해 왔다. 특히 노동력보다는 자본의 배분 왜곡이 두드러졌으며, 이러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기존 기업보다 혁신적 신생기업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를 나타내는 한 가지 지표는 스타트업 창업 5년 후 생존율인데, 한국은 약 34% 수준으로 미국(51.9%), 네덜란드(61.9%), 프랑스(50.8%) 등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다.

전문가들은 자본의 물줄기를 바꾸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시중의 막대한 유동성을 부동산이나 가상자산 같은 비생산적인 자산시장보다는 기술 R&D, 혁신 스타트업 육성, 산업 설비 고도화 등 실질적인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 영역으로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생산적 금융의 과제는 더 많은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부동산과 담보대출을 넘어 혁신기업과 장기투자자로 흐르게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의 성패는 신뢰받는 자본시장 완성에서 결정 날 것”이라며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신용평가사 등 시장문지기(gatekeeper)에 대한 신뢰 제고, 민간 금융사들의 위험 부담 등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자본시장 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융 상품과 부동산 간 세제 불균형을 완화해 자금이 생산적 금융 투자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유동 가능 주식 비율 확대와 일반 주주 권리 보호 강화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추진된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ccm  
소비자중심  
공정거래위원회

IRP 가입을 고민 중이시군요!  
한화투자증권에선  
전문가의 상담도  
운영/자산관리  
수수료도  
모두 ‘무료’  
\*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더 쉽게 알아보기

어때요?  
연금, 참 쉽죠?

**연금, 세가지만 기억해요!**

- 한화투자증권 연금상담센터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고 모바일을 통해 쉽고 빠르게 가입해요
-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하면 절세도 투자수익도 최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어요
- 한화투자증권 MTS '연금수령가이드'로 세금 부담은 낮추고 똑똑하게 인출해요

※ [퇴직연금] 투자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한산) 보호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IRP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됩니다.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6-211호 (2026.04.22 ~ 2027.04.21)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6-01910호 (2026.04.28 ~ 2027.04.27)

연금상담센터 : 080.851.7500 홈페이지 : www.hanwhawm.com



세상이 바뀌어도 지켜야 할 건 변하지 않습니다

# 미래 모빌리티의 일부이자 전부



##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

차량 전면 유리를 투명 디스플레이로 활용해 주행 정보 표시 및 이미지·동영상 등을 구현

# 與 정부주도 '5극 3특' 완성 vs 기업유치 '지역경제 부활' 野

## | '6·3 지방선거' 여야, 지역균형발전 미래성장 공약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 완성을 내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유치 및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행정구역 통합 등 근본적으로 판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국민의힘은 기업 유치나 정주여건 개선 등 시장 중심의 대응을 내세운 셈이다. 공공 주도의 '거시적 설계론'과 시장 친화적 '미시적 활성화'로, 양당의 관점 차이를 보여준 것이라 분석이다.

### ◆민주당, '5극 3특'으로 지방 주도 성장 추진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직접 연계된 '지방 주도 성장'을 당의 최우선 가치이자 1호 공약으로 선포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국을 5대 특별시와 3대 특별자치도 체제로 통합-인프라를 고도화하는 '5극 3특 체제 완성'이다. 5극 3특을 구현할 방안으로는 지방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지정,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꼽았다. 메가특구 내에선 각종 규제 특례와 재정과 금융 세제 등의 전폭적 지원도 추진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엔젤투자허브 구축, 창업도시 선정, 지역별 특성화 R&D 집중 투자 예산 확대 등도 포함돼 있다.

또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지자체가 중앙정부 예산에 종속되지 않도록 교부세율 및 지방소비세율을 획기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밖에 생활권 20분 내 문화시설 접근

권 보장, 관광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1기 신도시에 대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교통이 편리한 2기 신도시 건설, 자족 기능을 갖춘 3기 신도시 건설, 전국 광역 철도 확충,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대도시 도시철도 구축 등 교통 공약도 마련됐다.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 공항에 취항을 유도하고 지방공항의 여객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공약집의 첫 페이지에 5극3특 등 지방 주도 성장을 담은 이유는 이번 선거의 승리가 영남·강원 등 지방에 달려있

다고 판단해서다. 수도권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민주당으로서는 영남·강원 등 지역 표심을 겨냥해야 대구·부산까지 탈환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특구 지정 등 특례 없이 기업 유치 등으로만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ChatGPT가 생성한 6·3 지방선거 공약 이미지.

◆국민의힘, 규제완화로 '지역 경제 생태계' 조성

반면 국민의힘은 하향식의 대규모 행정 구역 개편이나 무조건적인 재정 투입 방식은 효율성이 낮다며,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본사나 주요 생산시설을 인구감소 지역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일정 기간 100% 법인세 면제, 향토기업 및 새로 이전한 기업 승계 시 고용유지 조건부로 기업상속세 전액 면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 맞춤형 DSR 완화, 지방주택 구입 시

주택수 제외, 취득세 75% 감면, LTV 90% 상향 추진, 세컨드홈 특례 확대 등도 공약으로 마련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프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규제를 풀어 민간 기업과 자본이 스스로 지방에 내려오도록 경제적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비수도권 소재 대학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를 통해 지방 대학에 계약학과 신설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인재가 유출되지 않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예비타당성 기준 2배 상향, 지방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항-지역관광지 연계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별 전통문화와 연계한 문화관광유산 발굴, 국가 숙박 및 식당 인증 브랜드 개발 및 등급화 등 방안도 내놓았다. 이는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ART FOR GYEONGGI



우리가 함께한 경기도 | 채소작



## AI인프라 확충·기후위기 대응 VS 규제 철폐·민간 일자리 창출

### '신산업 성장' 공약, 두 목소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신산업 성장'을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 국민의힘은 규제 철폐와 민간 주도형 일자리 창출 등 관점의 차이를 보였다. 해당 분야에서도 양당의 기조가 전략적 공공 주도 성장, 규제 철폐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으로 나뉜 셈이다.

28일 양당의 지방선거 정당정책을 분석해보면 민주당은 AI 신산업 육성을 위해 AI 인프라 확충, AI 대전환 추진, AI 기반사회 실현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내세워 여당으로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엔 GPU 조기 확보, 데이터센터 적시 구축을 위한 데이터 센터 진흥 특별법' 제정, 독자 AI 모델 오픈소스 개방, AI 미래교육 강화, K-AI 시티를 통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신산업으로 바이오, 방산, K-컬처 등을 선정했다.

또 민주당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과 기후위기 대응도 미래 성장의 핵심 열쇠로 꼽았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대응 역량 및 산업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이에 AI기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K-녹색산업 전환, 전력시장 혁신, RE100 산업단지 중심의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한다)' 전력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기술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대전환'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민간 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철폐, 지역 경제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안정적인 고용 유지 및 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 등이 목표다.

이에 국내생산축진세제(한국판 IRA)를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시스템 도입으로 신기술·신산업 진입 장벽 제거, 선진국에 없거나 과도한 규제의 개선 공론화를 위한 '규제혁신기준국가제' 설정을 공약했다.

/서예진 기자

# D램 시장 급성장... 삼성·SK, 차세대 기술개발·양산 속도

글로벌 D램 매출 전년 대비 260% ↑  
삼성·SK, 시장 점유율 70% 달해  
LPDDR6 등 미래 경쟁력 확보 나서



10나노급 6세대 D램 '1c LPDDR6' /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램 초호황 국면 속에서 차세대 메모리 기술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서버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D램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양사는 차세대 D램과 LPDDR6 등을 앞세워 향후 AI 메모리 주도권 확보 경쟁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중국 CXMT까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업계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글로벌 D램 매출이 전례 없는 AI 수요와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60% 급증한 97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분기 38%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며 선두 자리를 유지했으며 SK하이닉스는 29%로 2위를 이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 서버용 저전력 D램(LPDDR5) 탑재 확대 등을 글로벌 D램 시장 성장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모바일 D램 표준인 LPDDR6 시장 선점을 놓고 경쟁에 한창이다. AI 서버·엣지·온디바이스 AI 시장 확대에 따라 고효율·고성능 D램 수요가 증가하면서 LPDDR의 중요성 역시 한층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고체회로학회 2026'에서 최대 14.4Gbps 전송 속도의 LPDDR6를 선보인 바 있다. 이는 10나노급 5세대(1b) 공정을 기반으로 설계했으며 LPDDR5 대비 읽기 전력을 27%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10나노급 6세대(1c) 공정을 적용한 16Gb LPDDR5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상반기 내 해당제품의 양산 준비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품은 이전 세대(LPDDR5X)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를 33%, 전력효율을 20% 올렸다.

업계에서는 양사가 각기 다른 공정 기반에서 성능과 전력 효율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1b 공정을 바탕으로 안정성과 전력 효율 최적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한편 SK하이닉스는 선단 공정인 1c 기반으로 성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추격도 시장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성장세가 가팔라지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옵디아데이터에 따르면 D램 판매액 기준 CXMT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분기 3.97%에서 4분기 7.67%까지 상승했다.

더욱이 CXMT는 대규모 자금 조달을 바탕으로 생산능력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CXMT의 과장판(과학혁신탐·과학기술주 전용 시장) IPO가 이날

상장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발행 및 상장 조건과 정보공시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전했다. 회사는 이번 IPO를 통해 295억위안(한화 약 6조 5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오랫동안 삼성전자·SK하이닉스·미크론 등 3사가 과점 체제를 유지해 왔다. D램의 경우 3사 점유율이 90% 차지해왔지만 최근 CXMT가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업계에서도 성장 속도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범용 D램 중심으로 평가받았지만 최근에는 LPDDR과 HBM 등 고부가 제품군까지 빠르게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특히 정부 지원과 대규모 자금 조달이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메모리 시장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 LG전자, 이페이퍼 디스플레이 시장 진출... 초저전력 승부

내달 32형 QHD 제품 국내 출시  
"B2B 고객에 새로운 선택지 될 것"

LG전자가 전자잉크 기반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 뛰어들며 삼성전자와의 경쟁 구도를 본격화했다.

28일 LG전자는 'LG 이페이퍼 디스플레이'를 다음 달 초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후 유럽 등 해외 시장으로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페이퍼(E-Paper) 시장에는 삼성전자가 먼저 뛰어든 상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2형 '삼성 컬러 이페이퍼'를 글로벌 출시한 데 이어 올해 1월 13형으로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 가운데 LG전자가 32형 제품을 출시하면서 양사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페이퍼(E-Paper)는 전하를 띤 색 입자를 전기장으로 이동·고정시켜 이미지를 구현하는 전자 잉크 패널 기술이다. 전력 공급 없이도 화면을 유지할 수 있고, 이미지 전환 시에도 기존 디지털 사인지 대비 소비전력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매장 메뉴판, 프로모션 안내판 등 콘텐츠 교체 빈도가 낮은 상업 공간이 주요 수요처로 꼽힌다.



LG전자가 종이 포스터 질감을 초(超)저전력으로 구현하는 'LG 이페이퍼 디스플레이'를 출시했다. /LG전자

시장조사업체 데이터브리지마켓리서치(DataBridgeMarket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이페이퍼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2024년 53억 달러로 평가됐으며, 2032년까지 44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성장률(CAGR)은 30.4%에 이른다. 탄소 저감과 에너지 효율 규제가 강화되는 유럽 시장에서 초저전력 디스플레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LG전자의 이페이퍼 디스플레이의 사양은 32형, QHD(2,560×1,440) 해상도, 화면비 16:9다. 백라이트가 없는 반사형

패널로 시야각은 180도이며, 눈부심을 줄였다. 전자 잉크의 색 표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화질 개선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다.

배터리는 72Wh 대용량을 탑재했으며 완전 충전에는 약 3시간이 소요된다. 후면에 마그네틱 방식 보조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지정한 콘텐츠 전환 일정에 따라 전원을 자동 제어하는 '파워 미니먼트' 기능으로 배터리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LG전자의 사인지 솔루션 'LG 슈퍼사인(SuperSign) 콘텐츠 관

리 시스템(CMS)'과 연동하면 다수 기기에 콘텐츠를 원격으로 일괄 배포하거나 배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범용 직렬 버스(USB) 저장장치나 고객사 자체 CMS 서버를 통한 배포도 지원한다.

두께는 17.8mm, 가장 얇은 부분은 8.6mm이며 배터리 포함 무게는 3.1kg다. 올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Red Dot Design Award 2026) 본상을 수상했다. 운영체제(OS)는 LG전자의 TV·사이니지용 webOS를 탑재했다.

이번 출시는 LG전자 MS사업본부의 B2B 사업 강화 기조와 맞닿아 있다. 앞서 LG전자는 webOS 플랫폼과 B2B 사업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디바이스와 플랫폼, B2C와 B2B 간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MS사업본부는 webOS 적용 제품을 모니터·사이니지·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등으로 확대하며 플랫폼 기반 서비스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민동선 LG전자 MS사업본부 ID사업 부장은 "조경량·조슬림 디자인에 초저전력 기술을 더한 LG 이페이퍼 디스플레이가 B2B 고객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현대중공업 캐나다 조선소 협력 확대

잠수함 기술력 부각... CPSP 수주 총력

HD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를 위해 현지 조선소와의 협력 전선을 넓히며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도산안창호함의 캐나다 입항을 계기로 K-잠수함의 기술력을 부각하는 동시에, 캐나다 주요 조선소와 함정 건조·정비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현지 산업 참여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캐나다 데이비조선소 오타와 사무소에서 양사 경영진이 회동해 조선 및 함정 사업 전반에 걸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회동에는 박용열 HD현대중공업 함정사업본부장과 제임스 데이비스 데이비조선소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HD현대중공업은 선박 건조 기술력과 K-잠수함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캐나다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등에 의견을 교환했다.

또 HD현대중공업 경영진은 캐나다 현지에서 K-잠수함 홍보전에도 힘을 보탤다. 주원호 함정·중형선사업대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 에스퀴몰트 해군기지에서 열린 도산안창호함 입항 환영식과 주캐나다대사 주관 리셉션 등에 참석했다.

캐나다 조선업계 인사들의 울산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에는 캐나다 어빙조선소의 더크 레스코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중공업은 잠수함 수주에 필요한 산업 협력 패키지도 제안한 상태다. 앞서 지난 1월 HD현대중공업은 에너지 분야에서 HD현대오일뱅크를 중심으로 캐나다 원유업체로부터 수조 원 규모의 원유를 수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현지 조선소에 상선·함정 건조 노하우를 이전하고, 잠수함 운용·보수를 위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수조 원대 절충교역 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 가계 월평균 310만5000원 썼다... 교통·운송 ↑ 교육 ↓

데이터처 1분기 가계동향조사

올해 1분기 가계의 소비지출이 최근 9개 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가계 소비지출은 7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소득 증가율에 앞섰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310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분기와 비교해 5.3% 늘었는데, 이는 2023년 1분기 이후 3년 사이 최대 증가 폭이다.

같은 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8만1000원으로 2.4% 증가했다. 소비지출 증

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넘어선 것은 2024년 2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이다.

소비지출은 교통·운송에서 36만2000원(+12.1%) 늘면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자동차 구입(29.6%)이 특히 급증한 데다 운송기구 연료비(5.3%)도 늘었다.

보건 지출은 25만5000원으로 10.4% 증가했다. 외래의료서비스(12.6%), 입원서비스(18.9%), 의약품(8.0%) 등이 고루 늘었다.

이에 반해 교육 지출은 23만7000원으로 2.9% 줄었다.

소득 원천별로, 근로소득은 342만2000원으로 소폭(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업소득은 92만5000원(2.6%), 이전소득은 96만4000원(9.7%) 늘었다. 이전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은 7.8%, 사적이전소득은 14.6% 각각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근로소득 증가율이 0.3%에 그친 배경에 대해 "300인 이상 사업체들은 임금 많이 늘었으나, 그 아래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비 확대에는 자동차·가구 등 내구재 구매 증가의 기여 비중이 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가계의 흑자 여력 감소 역시 자동차나 가구 같은 내구재 구입 증가 영향이 컸다"며 "교통·운송비 증가는 연료

비 영향도 있지만 자동차 구입 증가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또 "주식시장 활황 영향이 소비 증가에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동차뿐 아니라 가구 등 내구재 소비가 전반적으로 늘었다"고 했다.

비소비지출은 113만7000원으로 1.2% 늘었다. 이자비용이 6.6%, 사회보험이 2.8% 각각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434만4000원으로 2.7% 늘었으나, 흑자액은 123만9000원으로 3.1% 감소했다. 흑자율은 28.5%로 전년동분기 대비 1.7%p 하락했고, 평균소비성향은 71.5%로 1.7%p 상승했다.

소득 분위별로는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이 117만원으로 2.7% 늘었고, 5분위 가구는 1237만8000원으로 4.2% 증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

/유혜은 기자 dhalehdale@

# 전문가 “철근누락은 법 부재 문제… 감리 시스템 손봐야”

(GTX 삼성역)

## 더불어민주당 긴급 좌담회

한국 건설 품질관리 등 한계 지적  
안전 컨트롤타워 부족 ‘도마 위’  
부실시공 공개 의무 등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긴급 전문가 좌담회를 열어 사태의 원인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의 실정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좌담회에 참석해 “전문가분들께 들었는데 SOC 해체 관련 법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SOC 해체 관련 법 부재 등 우리의 실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당장 해야 할 일부터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까지 점검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토위·행안위 주최로 열린 전문가 긴급 좌담회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최근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수석은 “서소문 고가 붕괴 역시 사고 12시간 전 이상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별도 안전 조치 없이 안전진단을 진행한 것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시공사가 제출한 해체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조적 문제와 제도 공백을 지적했다. 또 안전·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설치, 전문 인력 참여 지원, 감리 시스템 보완 등을 주문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지낸 박두용 한성대 교수는 배근팀·협력업체·원도급자·감리 등 4종 관리 시스템이 있었음에

도 철근 누락이 발생한 점을 들어 “한국 건설 시공의 품질 관리에 하나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서소문 사고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음에도 차량·열차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국가의 안전 관리 체계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화 등을 통해 공공 공사의 경우 부실시공에 준하는 것이 발견됐을 때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 안전 관리나 위기관리 체계는 굉장히 상위층에서 작동돼야 되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다. 서울시에도, 국가에도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현우 토목구조기술사회 회장은 “인프라 시설물 철거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조물에 대한 전문 기술자, 특히 구조 기술자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삼성역 철근 누락도 마찬가지다. 전문 기술자들이 양성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제도적인 전문 건설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성일 르네상스정책연구원장은 철근 누락에 대해 “시공사의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우리 건설 공사 시스템이 현재 제대로 기능을 안 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며 “(한국의) 감리 시스템

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근본적으로 손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회장은 “SOC 시설물은 관련 법이 없다. 그래서 별도의 법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AI,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점검 방식에) 활용하고 도입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어떤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비공개 좌담회를 마친 뒤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 시스템 붕괴에 대해 다들 우려하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며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골든타임을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SOC 사업 관련해 시공사라든지 여러 업체들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징벌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도 주셨다”며 “(철근 누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 작성돼야 할 시공 상세 도면이 없었던 것 아닌가, 만약 있었다면 이런 우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개헌 성사 못해 아쉬워… 후반기 국회 결실보길”

### 우원식 국회의장 퇴임 기자회견

국회기록원 설립 등 과제 95% 달성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개헌이 성사되지 못해 정말 아쉽다”며 “후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민주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등이 담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분회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투표가 불성립됐다.

우 의장은 “여야 갈등, 정쟁의 수준이 너무 격해지고 있어서 걱정이다. 39년 만의 개헌 기회를 문 앞에서 놓친 것도 그 여파”라며 “진영 나누기가 자리 잡은 환경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스

을 비롯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풀어나면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정치하는 보람이라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개헌과 관련해) 새롭고 큰 흐름은 만들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

해 절차적 걸림돌을 해소했고,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다”며 “국민적 합의가 높은 것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개헌에 국민적 공감대도 넓어졌다”고 했다.

또 우 의장은 임기 중 선과에 대해 “임

기를 시작하며 의욕적으로 세운 계획이 있었는데 역점과제를 94.9% 달성했다”며 ▲12·3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현정질서 회복 ▲의회외교 통해 대외신인도 제고 ▲헌법 제1조 새긴 국회의사당 정문 헌법 제1조를 새긴 국회의사당 정문 등 국민주권 정신을 국회공간서 구현 ▲국회 기록원 설립 ▲2035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 등을 꼽았다.

또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생명안전기본법, 가맹사업법 등을 거론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처리율 30.2%는 국민께서 보기엔 부족한 성적표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미 있는 성과가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그러다 보니 국회의장 중립에 대한 여러 말씀도 있었다”며 “단약 중립을 여야 양편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국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갈등의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역할을 넓혀야 한다. (저는) 국회 사회적 대화로 그 일을 본격화했고, 노사 5단체가 전부 참여해서 제도 밖 노동자의 보호 방안을 도출했다”며 “이러한 성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확대돼야 한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제화하는 국회법 개정이 후반기에는 꼭 매듭지어지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국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민심의 방향으로 해법을 찾는 것이 지금과 같은 정치구조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임기 초에 ‘태도가 리더십’이라는 말씀을 드렸다. 평의원으로서 돌아가서도 ‘태도와 문화로서의 민주주의’의 상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우제를 지내듯 마침내 이루어낼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 李 “공공부문 안전 문제 심각… 지위고하 막론 엄정 책임”

“안전보다 돈 중시하는 관행 여전  
관계 기관, 신속하게 진상 규명”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그런 못된 관행이 여전히 있다”면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사고,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

에 치어 숨진 구의역 참사, 오늘 10주기고 한다”며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해야 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관심과 현장의 노력 덕분에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망자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를 언급하며 “특히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이 관련됐

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최근 지역에서 행사를 참석한 후 인근 전통시장을 방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왜 시장에 밥 먹으러 갔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며 “원래 저는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니 좀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최근에 행사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로 식사를 시장에서 하면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면서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국민 일상과 관련된 전통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강

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상권에는 아직 그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에 가면 여러 사람 얘기를 듣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개선도 안 되고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 같다. 아케이드나 간판 같은 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노후시설 정비 수요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이 살아야 또 골목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균형 있는 경제 성장도 우리 사회의 모든 지역, 모든 영역, 모든 부분이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유통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예진 기자



## 여기, 새로운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낮선 땅 위에서도  
두려움보다 설렘이 앞서는 건,  
긴 시간 다져온 본질의 단단함이  
성장으로 이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2026, 새롭게 도약하는 KT는  
국민 모두의 일상이 명장면으로 채워지도록  
힘껏 뛰겠습니다

AX Platform Company 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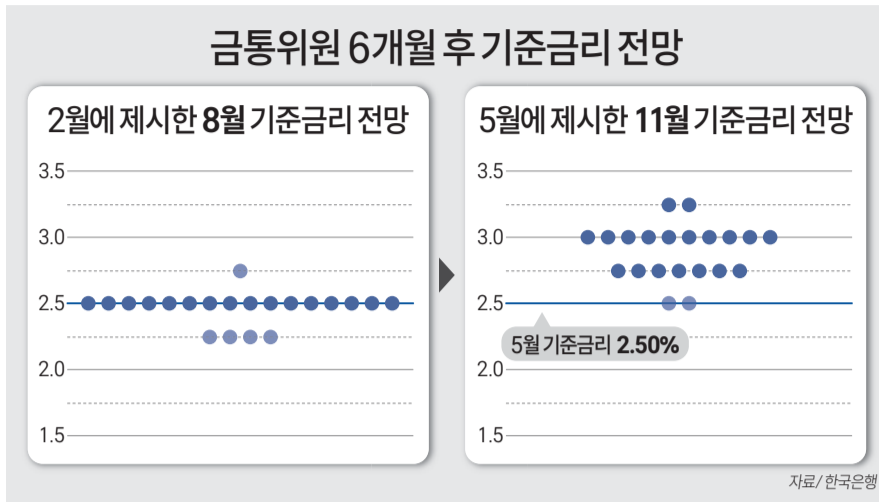
# “기준금리 동결 했지만... 적절한 시기 ‘인상’, 갈 길 명확”

**한은 금통위, 연 2.50% 유지**  
 신현승 총재 “물가·성장·환율 등 인상 가능성 열어둔 동결 가까워”  
 반도체 호조·IT 수출·증시 호황 등 올해 GDP 성장률 전망 2.0%~2.6%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지만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은 인상 쪽으로 이동했다. 신현승 총재는 물가와 성장, 환율, 부동산 흐름을 들어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밝히며 금리 인하 기대에 선을 그었다.

신 총재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상승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에서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 동결은 경기 둔화에 대비한 완화적 동결이



라기보다 중동사태와 반도체 경기 흐름을 더 확인하기 위한,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동결에 가까웠다.

◆ “언제·얼마나 빨리·어디까지”  
 신 총재는 금리 인상 문제를 세 가지로 나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제 올리느냐, 또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또 어디까지 올리느냐, 그 세 가지 문제를 봐야 한다”며 “이번에 점도표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 세 가지 질문의 해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통위 내부 기류도 인상 쪽으로 기울

었다. 장용성 위원과 유상대 위원은 이날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6개월 후 조건부 금리전망도 직전 회의보다 상향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인하 시점이 아니라 인상 시기와 폭으로 옮겨갔다.

다만 신 총재는 이번 결정이 금통위 내부의 방향 차이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과 부동산을 보나 금융을 보나 대체로 인식은 다 같이 했다”며 “소수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같은 틀, 같은 의견 하

에서 전략적인 차이”라고 말했다.  
 선제 인상론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다. 신 총재는 “금리를 올리는 것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그런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었다”면서도 “불확실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약간 지켜보자는 의견이 무게중심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 성장률 2.6%-물가 2.7%  
 한은이 매파적(통화 긴축정책 선호) 메시지를 낸 배경은 성장과 물가 전망의 동반 상향이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올렸다. 중동전쟁이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와 정보기술(IT) 수출 확대, 추가경정예산, 증시 호황이 이를 상쇄한다는 판단이다.

신 총재는 1분기 성장률이 1.7%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성장도 상당히 지금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냥 순환적인 일시적인 현상보다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에 무게를 줌을 게을러질 것 같다”고 말했다.

물가는 더 직접적인 인상 명분이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에서 2.7%로, 근원물가 전망치를 2.1%에서 2.4%로 각각 올렸다. 신 총재는 유가 상승의 직접 효과뿐 아니라 공산품·서비스 가격으로 번지는 간접 효과, 기대인플레이션과 임금으로 이어지는 2차 파급효과를 경계했다.

금융안정 변수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인덱스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도 다시 고개를 드는 양상이다. 신 총재는 “기준금리를 앞으로 상승함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현승 총재 첫 금통위의 메시지는 동결보다 인상에 가까웠다. 한은은 당장 금리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시장에는 다음 정책 방향이 인하나 아니라 인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 향후 기준금리 경로는 중동사태와 국제유가, 반도체 경기, 환율,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흐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 은행권, 시니어·외국인 위한 ‘타깃 금융’ 본격화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 전체의 21% ‘노후 재테크’ 자산관리 수요 많아  
 체류 외국인 283만명, 인구의 5% 환전 수수료 발생, 전용대출 등장



우리은행 시니어 플러스 영업점 내에 마련된 고령자 휴식 공간. 금융 상담에 앞서 시니어 고객 간에 여가 활동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바둑판도 마련돼 있다. /나유리 기자

은행권이 은퇴 이후의 시니어나 외국인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타깃 금융’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하 기조로 이자이익의 성장에 제동이 걸린 만큼 자산관리나 환전, 송금 등 각종 금융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고객을 확보해 수익성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은 특정 고객 계층을 공략하는 ‘타깃(Target·표적) 금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이자이익의 성장세가 꺾인 만큼, 각종 수수료가 발생하는 금융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집단을 공략해 비이자이익을 확대한다는 포석이다.

은행권이 가장 주목하는 세대는 은퇴 이후의 ‘시니어 세대’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인 시니어 인구는 1084만명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의 21.2%다. 시니어 세대

는 은퇴에 앞서 자산을 확보해 두는 만큼 고객 1인당 예치금이 많고, 금융자산으로 전환한 노후자산을 조금씩 인출해 사용한다. 청년·중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장기 거래를 선호한다. 최근에는 노후자산을 활용한 ‘노후 재테크’도 주목받는 만큼,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많아졌다.

국내 은행들은 지난 몇 년간 비용 효율화를 위해 점포를 빠르게 통폐합했지만,

최근에는 점포 수를 줄이는 대신 일부 매장을 ‘시니어 특화 점포’로 개편하고 있다. 방문 거래를 선호하는 시니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고령자를 위한 자산관리(WM) 서비스도 주요한 시장으로 떠올랐다. 베이비부머 1세대(1955~1963년생), 2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고령자들의 ‘노후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다. 주요 은행들이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WM 특화 점포에서는 자산관리전문가(PB)가 퇴직·연금·재테크·상속 등 각종 상담을 종합해 제공한다. 특히 과거에는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WM 시장이 운영됐지만, 최근에는 일반 시니어 고객을 위한 각종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는 추세다.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 고객도 주요한 타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8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한다. 특히 외국인 고객은 환전이나 송금 등 수수료가 발생하는 각종 금융 서비스 이용률이 높으며, 계좌 발급이 까다로운 만큼 특

정 은행과의 장기 거래를 선호한다. 또한 최근에는 대안정보나 기업 보증을 활용한 외국인 전용 대출도 시장에 등장했는데, 일반 대출과 비교해 수익성이 높은 편이다.

외국인의 금융 수요가 분명한 가운데 4대은행은 평택·안산·김포 등 수도권의 외국인 밀집지역에 외국인·다문화 직원을 배치하고 실시간 통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특화 점포’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또한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도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편, 전용 상품을 공급하고 각종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앱도 다수 등장했다.

계절근로자(E-8)나 고용허가제(E-9)를 활용한 체류 노동자가 많은 비수도권에서도 주요 지방은행(부산·iM·경남·광주·전북) 주도로 외국인 금융이 활성화됐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비이자이익 확보가 주요한 목표로 부상한 만큼, 각 은행권들도 시니어나 외국인 등 수익성이 높은 고객 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 역대 최저

간편결제·신용카드 확산 영향  
 한은, 지난 2월 이용액 4.3조

개인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감소하고 있다.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 패턴이 자리 잡으면서다. 현금서비스 시장 축소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 전망이 나온다.

2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인 현금서비스 이용 금액은 4조2916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현금서비스 이용 금액이 4조원 초반까지 줄어든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이용 건수도 감소세다. 같은 기간 개인 현금서비스 월간 이용 건수는 399만1000건으로, 지난해 9월(449만7000건)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올해 처음으로 400만건 밑으로 떨어졌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이후 역대 최저다.

현금서비스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즉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단기 대금대출 서비스다. 2000년대 초반에는 신용카드 이용 금액 중 현금서비스 비중이 매년 50%에 육박할 정도로 수요가 컸다. 지난 2003년 1월 이용 건수는 3248만4000건으로, 현재보다 8배 이상 많았다.

간편결제 및 신용카드 확산으로 현금 사용이 급감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내 개인의 월평균 현금 지출액은 32만4000원으로, 4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36% 감소했다. 반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3사의 결제금액은 100조원을 넘어섰고, 신용카드 승인 건수 역시 297억8000만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ATM 기기 감소 역시 현금서비스 수요 위축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과거에는 ATM을 통해 즉시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의 이용이 많았지만, 최근 현금 사용 감소로 인해 ATM 기기가 줄어 들면서 서비스 이용 장벽이 높아진 것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동작 ‘써밋 더힐’ 1순위 청약 경쟁률 32대 1

‘아크로 리버스카이’ 20대 1 기록  
 고분양가 논란 속 청약 열기 재확인

고분양가 논란에도 서울 동작구 재개발 대어로 꼽힌 흑석동 ‘써밋 더힐’과 노량진동 ‘아크로 리버스카이’가 1순위 청약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특별공급에 이어 일반공급에서도 수요가 이어지며 동작구 뉴타운 일대 청약 열기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흑석11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써밋 더힐’은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 211가구 모집에 6860명이 신청해 평균 32.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전용 84㎡ 타입으로 1가구 모집에 78명이 몰렸다. 이어 전용 49㎡B 60.5대 1, 전용 84㎡A 60.2대 1, 전용 39㎡A 57대 1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221가구 모집에 4931명이 신청하며 평균 2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써밋 더힐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일대

를 재개발하는 단지로 지하 6층~지상 16층, 30개 동, 전용 39~150㎡, 총 151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39~84㎡ 432가구다. 전용면적별 최고 분양가는 ▲39㎡ 12억2450만원 ▲49㎡ 16억7510만원 ▲59㎡ 22억4700만원 ▲84㎡ 29억7820만원이다. 국민평형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DL이앤씨가 노량진8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아크로 리버스카이’ 역시 같은 날 1순위 청약 열기를 진행했다. 132가구 모집에 2611명이 신청해 평균 19.78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44㎡는 47가구 모집에 307명이 신청하며 76.7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

했으며 전용 51㎡C 62.2대 1, 전용 59㎡A 57.7대 1 순으로 이어졌다.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총 98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84㎡ 분양가가 25억1830만~27억9580만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최근 대출 규제 강화 속에서도 서울 핵심지 신축 아파트 선호가 이어지며 청약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단지 모두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5일 진행된다. 계약일정은 써밋 더힐이 다음 달 16~18일,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같은 달 20~24일이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 국내건조 내건 '장보고 N'... 산업특수, 美 허용 범위가 관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업)

정부, 2030년대 후반 전력화 목표  
한화오션·HD현대중 수주전 예열  
조선·원전·방산 공급망 수혜 기대  
핵연료·원자로 美 협력체계 등 변수



호주 서호주 스티어링 해군기지. 2006년 개발일 행사에 호주 왕립 해군이 운영하는 잠수함 'HMA S 시언' 등이 정박해 있다. /뉴시스

정부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업인 '장보고 N' 프로젝트를 공식 선언하면서 조선·원자력·방산 등 국내 특수선 제조 생태계가 초대형 국책 사업의 출발선에 섰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핵연료 공급망 통제권을 쥔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공급망 자율성을 확보하느냐가 이번 사업의 실질적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경남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하는 장주기 운전 원자로를 개발해 오는 2030년대 중반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할 방침이다.

산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국내 개발·건조' 원칙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기존에 없던 독자 핵추진 무기체계가 국산

화되면 완성형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소재·기자재 기업까지 연쇄적인 공급망 효과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특수선 양강의 공급망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선형 설계 연구를 진행했던 한화오션은 잠수함 건조 이력과 거제 기지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장보고 계열 잠수함 사업 경험과 테라파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축적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기반을 앞세워 원전·조선 통합 공급망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국내 업계의 청사진은 미국이 쥐고 있는 군사용 원자력 협력 체계와 맞물려 있다. 한국이 원전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어 저농축우라늄(LEU) 활용 자체의 기술적 장벽은 낮지만, 이를 군사용 추진체계에 적용하는 순간 인간의 평화적 이용만을 전제로 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미국 국무부·에너지부(DOE)·의회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비확산 관리 체계를 거쳐야 하고, 영국의 미·영 상호방위협정(MDA)이나 호주의 오키스(AUKUS) 사례처럼 별

도의 해군 핵추진 협력 체계가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의 원자력 건조를 승인했다"면서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은 변수로 꼽힌다. 미국이 자국 공급망과 고용을 이유로 선체 건조나 핵심 원자로 모듈의 미국 내 제작을 요구할 경우 국내 조선·원전 생태계가 확보할 사업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병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한국은 원전 인프라 측면에서 호주와 상황이 다르지만, 미국이 우리 공급망에 어느 범위까지 자율성을 허용할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가 방향성을 먼저 제시한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미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실제 국내 공급망 참여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dhale@metroseoul.co.kr

## K-전선, 북미·유럽 전력 인프라 정조준

AI·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LS전선, 북미 생산·공급망 강화  
대한전선, 유럽 HVDC 시장 공략



LS전선 미국 자회사 LS그린링크의 미국 버지니아주 공장 조감도. /LS그룹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전선업계 양강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이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LS전선은 북미 현지 생산과 공급망 구축에, 대한전선은 유럽 해상풍력·HVDC(초고압직류송전) 시장 확대에 무게를 두며 지역별 수요에 맞춘 생산 거점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전력 인프라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구분 LS전선 대표인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시 LS그린링크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LS그린링크는 LS전선이 미국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시에 구축 중인 대규모 해저케이블 생산기지로 미국 내 해상풍력 확대와 전력망 확충 수요에 대응하는 핵심 거점이다.

멕시코 생산법인 LSCMX도 북미 공략의 주요 거점으로 키우고 있다. LS전선은 올해 1월 멕시코 케레타로주 LSCMX에

약 2300억원을 투자해 전력 인프라와 모듈리티 부품을 함께 생산하는 통합 거점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버스덕트 설비를 늘리고 자동차용 전선 공장을 새로 지어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와 북미 제조업 공급망 수요에 대응한다.

LS전선이 북미 시장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망 병목과 송배전 인프라 투자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신규 데이터센터와 발전 프로젝트의 계통 연결 신청이 늘

면서 송전망 부담이 커지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 속도를 송전망 증설이 따라가지 못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만큼 초고압 케이블과 배전 인프라 수요도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해상풍력도 북미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를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동부 연안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해상 발전단지와 육상 전력망을 연결하는 초고압 해저케이블 수요가 늘고 있다.

대한전선은 유럽 재생에너지 시장을 중심으로 해저케이블과 HVDC 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덴마크·스웨덴·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유럽 내 5개 지사와 1개 법인을 기반으로 현지 영업망을 넓히고 있다. 김대현 호반그룹 사장은 최근 덴마크·네덜란드를 방문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유럽본부의 사업 전략을 점검했다.

유럽은 북해를 중심으로 해상풍력 투자와 국가 간 전력망 연결 사업이 확대되면서 장거리·대용량 송전에 적합한 HVDC 인프라 수요가 커지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 현대모비스, 오픈소스로 SDV 경쟁력 키운다

이클립스 SDV 워킹그룹 가입

현대모비스가 모빌리티 소프트웨어(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픈소스 방식을 도입한다.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최대 비영리 오픈소스 개발 단체인 이클립스 파운데이션의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워킹그룹에 가입하고, 산하 에스코어 프로젝트에 참여해 SDV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28일 밝혔다.

에스코어 프로젝트는 기능 안전 표준(ASIL-B)을 갖춘 최초의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 표준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

로, 2024년 유럽 기업들을 중심으로 출범했다. 현재 해당 프로젝트에는 총 13개 기업이 참여해 SDV 구현에 필요한 기술 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에스코어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IT 분야에서 주로 활용하는 오픈소스 개발 방식을 모빌리티 분야에 적용한 것이라고 현대모비스는 설명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소프트웨어 기술 일부를 공개하고, 전세계 개발자들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해당 플랫폼 이용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양성운 기자 ysw@

## 효성중공업

### 태양광 PPA로 전력 조달 재생에너지 사용 30% ↑

효성중공업이 창원공장에 태양광 전력 구매계약(PPA)을 도입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글로벌 친환경 공급망 요구 대응과 탄소배출 감축에 나선다. 효성중공업은 창원공장이 이달부터 PPA 방식을 적용해 외부 발전사업자로부터 1.6MW 규모의 태양광 전력을 조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창원공장은 기존에 5.3MW 규모의 태양광 자가발전 설비를 운영해왔다. 이번 PPA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기존 자가발전 설비 대비 약 30% 늘어난다. /원관희 기자

## LG엔솔, 북미 ESS 시장 공략 속도

DTE에너지와 6GWh 공급 계약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사업 투입

미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전력망 고도화 수요가 맞물리면서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현지 생산 역량을 앞세워 대규모 공급 계약을 추가로 확보했다. 현지 조달과 안정적 공급을 중시하는 북미 시장 환경에 맞춰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 기반을 먼저 갖춘 전략이 수주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주 최대 종합 에너지 기업인 DTE에너지와 총 6GWh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16억달러(약 2조4000억원) 수준이며 공급 기간은 약 2년이다.

이번 계약 물량은 미국 미시간주 살린타운시에 들어서는 오라클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포함해 총 8개 전력망 구축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공급되는 ESS

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부하를 안정적으로 제어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저장한 뒤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DTE에너지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본사를 둔 대형 유틸리티 기업이다. 미시간주 동남부를 중심으로 약 230만 가구의 전력 고객과 130만 가구의 천연가스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연계 전력망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미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맞물리며 ESS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서버와 냉각 설비가 24시간 가동되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순간 부하 대응 능력이 중요해 ESS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는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이 지난해 180TWh에서 2030년 391TWh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관희 기자

## 삼성, GLP-1 디지털 헬스 연구 확대

MGH와 환자 신체 변화 분석

삼성전자가 비만치료제 시대를 겨냥한 디지털 헬스 연구 확대에 나섰다. 미국 하버드 의대 부속 병원과 손잡고 갤럭시 워치를 활용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며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과 협력해 GLP-1 계열 치료제 복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자의 신체 변화를 갤럭시 위치로 추적·분석하는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GLP-1 계열 치료제가 체중관리와 만성질환 치료 영역에서 대중화되면서 치료 과정에서 체중 뿐 아니라 근육량과 신체 활동 변화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다.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헬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3474억달러에서 오는 2033년 연평균 23.4% 성장해 1조 800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GLP-1 계열 치료제 확산과 함께 체성분·활동량·심박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수요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는 갤럭시 위치와 삼성 헬스가 제공하는 체성분, 활동량, 심박 등 일상 데이터를 활용해 GLP-1 치료 환자의 근손실 관리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차현정 기자 hyeon@

# “모두의 창업” 아이디어, 사회적 자산으로 쌓이길 희망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모두의 창업’ 6만2944명 신청  
 “창업국가 선언에 큰 의미 부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모두의 창업” 도전자들이 제출한 아이디어들이 사회적 자산으로 쌓이길 희망한다. 하반기에는 더 많은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다.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이나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글로벌 리그’를 추가하는 것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중기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선발 예정인) 5000명보다 (도전했다 탈락한) 5만7000여 명이 더 신청중이다. 하반기에는 가급적 (모두의 창업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 싶다”면서 이같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서울 마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달 15일 접수를 마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총 6만2944명이 신청했다.

한 장관은 “9세부터 90세까지 세대를 넘나들면서 창업이라는 단어의 버튼을 누른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신청자들의 아이디어에 대해 전국 멘토기관의 검증을 거쳐 내달 중 총 5000명의 창업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처음 진행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선 일단 5만7944명이 고배를 마시게 됐다.

한 장관은 “현 정부가 내달 4일 1주년을

맞는데 ‘창업국가 선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에 대한 국민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면서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 소공인 데이터베이스도 넣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소공인들도 연결해 줄 것이다. 서로 고객이 되게 연결해주는 것이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올 한해 ▲모두의 창업을 중심으로 한 ‘창업’ ▲TIPS(TIPS)를 통한 ‘성장’ ▲점프업 프로그램을 활용한 ‘도약’ ▲재도전과 안전망’을 정책 중심에 두고 파나갈 예정이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 금액을 늘리거나 경영안정바우처를 더 준다고 폐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앞서 실시한 ‘소상공인 위기알림톡’ 체계를 좀더 갖춰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실제 7만5000건의 위기알림톡을 보낸 결과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소상공인 중에서 1인 여성 지역업자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기부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도 관련 정책이 많아 공조가 필요하다. 그룹화를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별도 관리해 정책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로컬창업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8월말 진행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과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통해 행정을 혁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보호 대상으로만 보던 중소기업 정책 관점을 앞으로는 성장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무조건 성장만 보겠다는 것도 아니다. 성장을 위한 정책은 약 13만5000개 정도인 중기업이 주 대상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 성장과 보호, 안전망을 나눠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삼성전자 “6K 게이밍 모니터 체험하세요”

**강남·홍대서 오디세이 체험존 마련**  
 업계 첫 6K 화질 지원·듀얼모드 기능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 6K 게이밍 모니터를 신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열고 게이밍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섰다. 업계 최초 6K 게이밍 모니터를 비롯한 플래그십 제품을 앞세워 고사양 게이밍 시장 공략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강남역에 위치한 ‘메이플 아지트’와 홍대입구역에 위치한 ‘T1 베이 스퀘어’ 두 곳에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체험존’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체험존에서는 ‘오디세이 G8(G80HS)’과 ‘오디세이 OLED G8(G80SH)’ 등 모니터 신모델의 뛰어난 화질과 연결성, 빠른 응답 속도 등 최적의 게이밍 성능을 체험할 수 있다.

AI PC와 고사양 게임 수요 확대에 따라 프리미엄 게이밍 모니터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모델이 강남역 ‘메이플 아지트’에서 삼성전자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로 게임을 즐기고 있다. /삼성전자

글로벌 OLED 게이밍 모니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역시 초고해상도·OLED 중심의 프리미엄 게이밍 시장 선점에 나선 모습이다.

업계 최초 6K(6144×3456) 화질을 지원하는 ‘오디세이 G8(G80HS)’은 2100만 개 이상의 픽셀을 통해 기존 FHD 대비 10배 이상, 4K UHD 대비 약 2.5배 이상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고해상도 그래픽 기반의 RPG(역할수행게임)와 RTS(실시간 전략게임)를 보다 매끄럽고 몰입감있게 즐길 수 있다.

또 ‘오디세이 G8(G80HS)’은 224 PPI의 높은 픽셀 밀도로 섬세한 디테일까지 정밀하게 표현하며 마치 종이에 인쇄된 출력물을 보는 듯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특히 사용 환경에 따라 ‘6K·165Hz 초고해상도’ 모드와 ‘3K·330Hz 초고주사율’ 모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듀얼 모드’ 기능을 탑재해 RPG부터 FPS(1인칭 슈팅게임)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최적의 게임 경험을 지원한다.

‘오디세이 OLED G8(G80SH)’은 완벽한 블랙으로 무한대의 명암비를 구현하는 ‘트루블랙’ 기술을 갖춰, 다크 판타지 게임이나 화려한 광원이 돋보이는 SF게임처럼 빛과 어둠의 대비가 극명한 게임 플레이에 최적화된 화질을 제공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 포스코퓨처엠, LFP 양극재 사업 본격화

**공장 착공... 연산 5만톤 생산 확대**

포스코퓨처엠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엔트리급 전기차 배터리 수요 확대에 대응해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사업을 본격화한다. 기존 삼원계 양극재 중심 포트폴리오에 LFP 제품군을 더해 북미·유럽을 중심으로 커지는 공급망 다변화 수요에 대응하려는 전략이다.

포스코퓨처엠과 피노, CNGR의 합작사 씨엔피신소재테크놀로지는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에서 안전기원 행사를 열고 LFP 양극재 공장 건설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이 공장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며 생산능력은 단계적으로 연산 최대 5만톤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LFP 양극재 공장 건설 안전을 승인하고 같은 달 합작 파트너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다.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등 삼원계 배터리보다 출력은 낮지만 가격 경쟁력과 긴 수명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가로 ESS 수요가 빠르게 늘고 전기차 시장에서도 엔트리급 모델을 중심으로 LFP 배터리 채택이 확대되고 있다.

주요 배터리 업체들도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능력을 늘리고 있다. 각국의 통상 정책과 공급망 다변화 요구가 강화되면서 한국산 LFP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



포스코퓨처엠의 합작사 씨엔피신소재테크놀로지가 포항 영일만 4산단에 건설하는 LFP 양극재 공장 조감도. /포스코퓨처엠

보하려는 수요도 커지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공장 착공을 계기로 삼원계 양극재와 LFP 양극재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포항 양극재 공장의 하이니켈 제품 생산라인 일부를 LFP 양극재 생산라인으로 개조하고 있다”며 “2분기 중 시제품 생산을 시작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중진공, 7년 연속 기금운용평가 ‘탁월’

**자산운용 성과·관리체계 우수성**  
 전담조직 필두 위원회 역할 강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금운용평가에서 25개 기금 가운데 유일하게 7년 연속 ‘탁월’ 등급을 받았다.

28일 중진공에 따르면 기획예산처 주관의 ‘2025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에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이 자산운용 성과와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7년 연속 ‘탁월’ 등급을 획득했다.

기금운용평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여유자금 운용 성과, 운용체계, 정책 수립, 투자집행의 적정성 등 4개 부문을 심사하며 ‘탁월’부터 ‘아주미흡’까지 총 6단계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번 평가에서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은 총 3개다.

중진공은 고금리 지속과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등 변동성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시장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고 기민하

게 대응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했다. 특히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자산운용 전담조직을 필두로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전주기 위험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AI 공급망의 초호황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K자형 성장’으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영환경은 냉혹한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중진공은 기금 건전성을 바탕으로 위기극복과 혁신성장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진공은 올해 총 12조229억원 규모의 중진기금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혁신기업 육성 및 위기극복 ▲수출확대와 해외진출 지원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 ▲인공지능(AI) 역량강화 및 답테크 창업지원 등에 힘쓰고 있다.

/김승호 기자

##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 포상금 첫 지급

**신보중앙회, 신고 2건 지급**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 포상금을 처음 지급했다.

신보중앙회는 제3차 부당개입(불법 브로커) 행위를 막고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불법 브로커 통합신고센터에 올해 접수된 15건의 신고 가운데 정부기관 등 사칭 관련 신고 2건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 포상금을 처음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2건의 신고 모두 증빙을 포함한 접수된 것으로, 내용의 구체성 및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 1차 검토 후 심의위원회에서 신고자의 협조성, 증거의 구체성, 혐의 결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각각 100만 원과 5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신고포상제는 기존 제3차 부당개입 신고제도에 포상금 지급을 연계해 부당개입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고 허위 서류 작성 등 금융범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포상금 규모는 건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수사 진행단계 등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 규모의 20%(수사의뢰전), 30%(수사의뢰시), 50%(확정 판결시)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들 2건의 신고는 불법 브로커가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미끼로 기존대출 상환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급전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확인됐다. 피해 신고 건 중 1건은 현재 경찰청 등 수사당국에 의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영준 신보중앙회장은 “앞으로도 포상금 지급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보증 사기·서류 조작 등 금융 범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검색 넘어 실행까지 연결되는 ‘AI 통합 에이전트’ 서비스”

## 네이버 데이터·콘텐츠전략 발표

독자 콘텐츠 기반 AI 경쟁력 강화  
내달 신규 버전 스마트렌즈 공개  
“5년간 1조 규모 기술외적 시도”

네이버가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경쟁력을 ‘데이터·콘텐츠·서비스 경험’으로 규정하며 창작자 생태계 확대와 AI 검색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

네이버는 2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AI 시대 네이버의 데이터·콘텐츠 전략’을 주제로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AI 검색 경쟁력 강화와 창작자 생태계 확대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현 네이버 최고 데이터·콘텐츠책임자(CDO), 이일구 네이버 콘텐츠 서비스 부부장, 김상범 네이버 검색플랫폼 부부장이 참석했다.

네이버는 생성형 AI 경쟁이 단순 모델 성능 경쟁을 넘어 데이터 품질과 서비스 경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독자 콘텐츠 생태계를 기반으로 AI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28일 진행된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 현장에서 발표하는 네이버 김광현 CDO /네이버

### ◆“AI 핵심은 데이터와 서비스”...5년간 1조 투자

김광현 CDO는 “AI 플랫폼 경쟁의 중심이 모델 자체에서 데이터 품질과 서비스 경쟁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창작자 생태계와 외부 파트너십을 통해 실행형 에이전트 기반이 되는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AI와 연결해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가 25년 이상 구축한 독자 콘텐츠 생태계는 무엇보다도 비할 수 없는 핵심 자산”이라며 “좋은 콘텐츠와 창작자

를 발굴하기 위한 기술 외적 시도를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AI 시대 핵심 콘텐츠 자산으로 사용자 제작 콘텐츠 UGC를 강조했다. 블로그·카페· 지식인·프리미엄 콘텐츠 등 플랫폼 전반에서 활동하는 창작자와 함께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신규 펠로우십 프로그램 네이버 메이트’를 도입한다. 네이버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우수 창작자 약 3000명을 AI 브리핑 인용수 등을 기준으로 매

달 공개할 예정이다.

네이버 메이트는 오는 6월 블로그·카페· 지식인·프리미엄 콘텐츠 창작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며, 하반기에는 클럽 창작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일구 부부장은 “AI 시대에도 실제 경험과 인사이트가 담긴 UGC는 AI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라며 “좋은 창작자와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공감대를 확대하는 서비스 실험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AI 검색 넘어 ‘실행형 AI’로...스마트렌즈도 고도화

네이버는 검색을 넘어 실제 행동과 실행까지 연결되는 ‘AI 통합 에이전트’ 구현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김상범 부부장은 서비스 시나리오에 최적화된 프로젝트 네이버 BLM과 100억 건 규모 데이터, API 툴, 안정적 서비스 운영 역량 등을 네이버 AI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꼽았다.

그는 “검색 생태계를 자체 기술로 구축하고 운영해온 경험 자체가 네이버만의 강점”이라며 “차세대 하이퍼클로바X 모델도 조만간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현재 AI 검색 서비스 고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출시한 ‘AI 브리핑’은 월 사용자 3000만 명 규모 핵심 검색 서비스로 자리 잡았고, 지난 4월 베타 출시한 ‘AI 탭’ 역시 한 달 만에 누적 사용자 30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AI 탭은 대화형 검색 기반으로 심화 탐색과 서비스 실행 기능을 결합한 형태로, 네이버는 이를 통해 검색 중심 플랫폼에서 실행형 AI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네이버는 오는 6월 말 신규 버전 스마트렌즈도 공개한다. 카메라 기반 검색 서비스인 스마트렌즈는 촬영만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실행까지 연결하는 방식으로 AI 브리핑·AI 탭과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부부장은 “6월 AI 탭 정식 출시 이후 모든 네이버 사용자가 모바일과 PC에서 대화형 검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한국 사용자의 일상과 맥락을 가장 잘 이해하는 플랫폼으로서 검색을 넘어 실제 실행까지 연결되는 에이전트 AI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LG U+, 요금제 개편 추진... 데이터 사용 등 ‘고객체감’ 방점

### ‘심플리 2.0’ 발표... 혜택 등 재설계 “어떤 요금제라도 끊임없이 데이터 사용”

LG유플러스가 통신 요금제 개편에 나선다. 현재의 복잡한 체계를 간소화하고 상품명도 직관적으로 바꾼다. LG유플러스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심플리 2.0’ 전략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고객 의견 약 1만 건을 분석해 요금·혜택·가입 과정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했다. 먼저 요금제를 기존 53종에서 18종으로 줄였다. 5G·LTE 통신망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며, 특징에 따라 플러스 플랜과 데이터 플랜으로 구분했다. 두가지 모두 데이터를 소진하더라도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통해 망과 연결되는 게 특징이다. 가입자들은 기본 데이터와 이후 제공하는 속도 기준만 보고 요금제를 선택하면 된다.

데이터 플랜 14종은 300MB 요금제(2만



LG유플러스의 강진욱 모바일·디지털사업그룹장(왼쪽)과 장준영 마케팅그룹장이 28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LG유플러스

8000원)부터 무제한(8만5000원)까지 세분화했다. QoS 옵션은 400Kbps부터 5Mbps까지 총 3가지다.

연령별 혜택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만 13세가 되는 고객은 생일 그 다음달 첫날에 키즈에서 청소년 혜택을 받게 된다. 만 65세 이상 시

니어 고객 혜택도 강화한다. 추가 요금 없이 음성·문자를 무제한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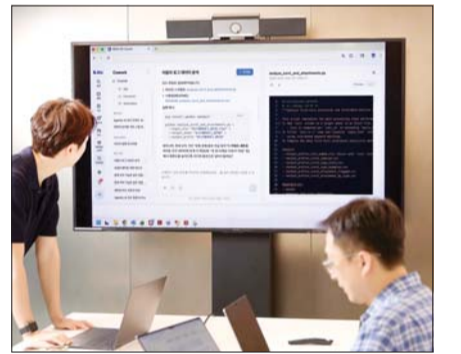
모바일과 인터넷 상품을 패키지로 하나로 구성한 올인원 요금제 ‘플러스 플랜’ 4종도 선보인다. 데이터 무제한에 티빙,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프리미엄 등 OTT와 함께 인터넷을 기본 제공한다. 요금제는

OTT 구성에 따라 월 9만5000원부터 시작한다.

해외 로밍도 간편해진다. 익시오 로밍 앱을 통해 해외 170여개국에서 5G 망으로 무제한 통화할 수 있다.

올해 3분기에는 ‘심플리 3.0’을 공개한다. 이날 장준영 마케팅그룹장(상무)은 “3.0에서는 익시오 중심의 마케팅을 고민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제휴 파트너와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심플리 1.0에서 유플러스 통합 앱을 통해 디지털 경험에 집중했다면 2.0에서는 고객 입장에서 통신 본질에 해당하는 요금의 단순화를 완성한 단계”라고도 했다.

강진욱 모바일·디지털사업그룹장(상무)은 “고객 체감 요소는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더라도 끊임없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어떤 개편으로 유튜브나 카카오톡의 무제한 사용 시대를 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민선 기자 msj@



SK텔레콤 임직원들이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이닷 비즈 코워크’ 베타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SK텔레콤

### SKT, 업무 AX 가속화

사내 ‘에이닷 비즈 코워크’ 적용

SK텔레콤이 사내 인공지능전환(AI) 혁신에 나선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이닷 비즈 코워크’ 베타 버전을 사내 업무에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에이닷 비즈 코워크는 임직원의 업무 방식을 AI가 학습해 업무 루틴을 자동화한다. 스스로 실행 계획을 세우고 코드 작성과 결과 검증을 수행한다. 법무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기준을 학습시키면 이후 AI가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 결과를 정리해주는 식이다. 복수의 서류를 AI가 읽고 필요한 조건을 추출해 비교표도 만들기도 한다. 사내에서 활용하는 아웃룩, 팀즈 등도 연동되고 향후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전사 AX 관리 플랫폼 ‘AXMS’도 1.5 버전으로 업데이트 했다. 전사 AX 과제를 통합된 대시보드에서 관리하고 과제 등록 및 관리 등이 주요 기능이다. 업데이트를 통해 SK텔레콤은 AX 과제 등록·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구성원이 아이디어를 실제 과제로 발전시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도 확대했다.

SK텔레콤 윤현상 에이닷기획담당은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맞춰 다수의 AI 에이전트를 직접 구현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가겠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 NHN 한게임 포커 콘텐츠 확대

신규모드 ‘러시홀덤’ 추가

NHN이 모바일 한게임 포커에 빠른 진행 방식의 신규 모드 ‘러시홀덤’을 추가하며 이용자 경쟁 콘텐츠 강화에 나섰다.

NHN은 모바일 웹보드 게임 한게임 포커에 신규 모드 ‘러시홀덤’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러시홀덤은 기본 홀덤 규칙에 속도감 있는 플레이를 결합한 신규 콘텐츠다. 한 테이블당 최대 6명이 참여하며 이용자는 자신의 순서가 아니더라도 다이 기권 이후 즉시 새로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다른 이용자의 배팅을 기다리지 않고 연속 플레이가 가능하다. /최빛나 기자

### NC AI 컨소시엄, 피지컬 AI 국책과제 수행

현대로템 협력... ‘월드 모델’ 총괄

NC AI가 현대로템과 손잡고 국방과학연구소의 피지컬 AI 국책과제 참여를 통해 방산 AI·로봇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NC AI는 현대로템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피지컬 AI 기반 통합 시뮬레이터 및 모듈형 로봇 시스템’ 연구개발 과제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래 전장 환경에서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종·다중 무인 로봇을 통합 제어하고, 디지털트윈 기반 시뮬레이터와 모듈형 로봇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다.

NC AI는 이번 사업에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 구현의 핵심 기술인 ‘월드 모델’ 개발을 총괄한다.

월드모델은 로봇이 현실 세계 물리 법칙과 환경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피지컬 AI 핵심 기술이다. 특히 가상 환경에서 학습한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변수로 오작동하는 ‘시뮬레이션-현실 격차’를 줄이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NC AI는 자사가 보유한 3차원 가상 세계 구축 기술과 3D 생성형 AI 기술을 결합해 국방 지형과 전장 상황을 구현하고, 로봇 학습용 대규모 합성 데이터 생성과 인프라인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과제를 두고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형성됐던 피지컬 AI·월드모델 분야에서 국내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은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NC AI는 지난 3월 글로벌 최고 수준 모델 대비 약 25% 수준의 GPU 자원만으로 유사 성능을 구현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WFM) 기술을 공개한 바 있다. 기존 방식이 대규모 영상 생성 후 이를 다시 추론하는 구조였다면, NC AI는 잠재공간 정보에서 로봇 행동을 직접 도출하는 경량화 구조를 적용했다.

NC AI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범용 AI를 넘어 산업특화 AI 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병력 감소와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국방 AI 전환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빛나 기자

# 반도체 끌고 밸류업 밀고... “코스피 8000, 버블 아닌 재평가”

## ③ 과열론 선 그은 증권가

파죽지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8000을 찍은 코스피가 어디까지 오를지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주요 5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한 결과 이들은 “최근 코스피 상승세가 가파르기는 하지만 ‘과열’로 보기는 힘들다”며 1만 포인트도 꿈의 숫자가 아니라는 데 무게를 뒀다.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상법 개정)이 이어지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낙관적이어서 중동 전장발 유가 상승압력 및 물가 불안(금리 급등) 등 산발적인 해외 악재에도 상승장이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고유가, 고회율, 고금리 등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면 증시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경고도 일각에서 나온다.

**증권가 “과열로 보긴 어렵다”**  
AI 모멘텀에 이익 전망 상향  
상법 개정·주주환원 기대 확산  
1만선 강세 시나리오도 부상

◆ ‘사상 최고치 행진’ 안 끝났다... ‘코스피 여전히 싸다’

코스피가 달아오르자 각 증권사들은 서둘러 연내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 14일 KB증권은 목표 지수를 7500포인트에서 1만500포인트로 40% 상향 조정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코스피 시장의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919조원으로 추정되며, 압도적인 실적 개선 전망에도 주가순자산비율(PBR) 7.9배, PBR 1.8배, 자기자본이익률(ROE) 25%로 아시아 신흥국 평균 대비 30% 이상 할인 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한국은 반도체, 전력, 로봇 등 AI 인프라 구축에 최적화된 산업 구조를 확보하고 있어 최근 주가 상승에도 코스피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경기 사이클 붕괴, 금리 급등 등의 명확한 신호가 있어야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 |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하는데 이 같은 신호가 약 3~6개월 내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현대차증권과 유안타증권도 각각 강세장 전망치를 1만2000, 1만1600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도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1만피가 가능하다고 봤다. 모건스탠리는 6500~9500, 골드만삭스는 9000을 잡았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8000선 후반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변동성 확대가 있더라도 상승 추세 종료가 아닌 상승장 속 단기 등락, 매물소화, 과열해소 국면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한국 증시가 라레이팅(재평가)되고 있다는 얘기가.

반도체 등 주도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증시의 주도주가 경기민감주(시클릭)에서 추세 성장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외 업종에서도 밸류업 정책을 기반으로 구조적인 주주환원 체질 개선이 이어질 경우 증시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이 센터장은 “반도체 업종은 장기공급계약(LTA) 비중 확대 등을 바탕으로 기존의 시클릭 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며 “시장이 메모리 산업의 미래 이익(Earnings)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메모리 업종에도 주가수익비율(P/E) 기반의 밸류에이션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코스피 상단을 열어줄 주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코스피가 전인미답의 고지를 돌파하고 있지만 증시 상승에 제동을 걸 만한 대외

적인 변수들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 주요 변수들은 반도체 피크, 유가와 환율, 유동성 환수 여부 등이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AI 모멘텀 확산과 반도체 업황 호황 지속,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작용하는 만큼 코스피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도 올해 가을부터는 변수가 존재한다고 봤다. 반도체 피크아웃 리스크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반도체만 오른 게 아니다... 비반도체도 레벨업 뚜렷

시장 온기가 비반도체로 퍼질 수 있다는 전망도 했다.

양 센터장은 “반도체를 넘어서거나 버금가는 주도 산업이 부각되기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반도체와 선순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주도 산업 부상 가능성 충분하다”며 “올해는 반도체의 압도적인 실적 전망 상향 조정에 못지 않게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들의 이익 개선도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봤다. 반도체를 제외한 영업이익도 컨센서스(시장 예상치) 기준 전년 대비 45% 이상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대신증권은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에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2021년 고점 대비 코스피는 123.9%, 반도체는 252.4% 급등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도 2021년 고점 대비 84% 올랐다는 설명이다.

양 센터장은 “비반도체 업종의 주가수익률도 글로벌 증시 중 상위권을 기록 중”이라며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둔화될 경우 코스피 상승 탄력은 둔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지만, 하락 추세 반전은 단기간에 이뤄지

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도 “한국 증시에서 이익 모멘텀이 반도체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글로벌 전반적으로 자본재, 소재, IT하드웨어 업종의 이익 모멘텀이 양호하고, 한국 증시도 자본재 비중이 낮지 않은 편이다. 내수 개선 등으로 인해 금융, 소비재 업종 라레이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가·환율·금리 불안은 부담**  
피크아웃 리스크는 하반기 변수  
외국인 매도는 리밸런싱 성격  
자본재·금융 등 확산세 주목

다만 양 센터장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완전히 정상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4월처럼 급하게 상승할 경우,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은 유가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요한 지표”라고 덧붙였다.

◆ ‘스마트 게임’들의 공격적인 투자... 외국인 수급 방향은?

최근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는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며 ‘머니 무브’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대규모 매도세를 보이며 반대 행보를 견고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증시 주도 세력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게임 설계자 장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 센터장은 “2021년 당시에는 지수 레벨업과 함께 12개월 선행 PER은 14배를 상회하며 고평가 영역에 위치했지만, 현재 외국인 매도는 리밸런싱 차원에서 매물 출회로 판단된다”며 “5월 외국인 대량 매도에도 코스피 내 외국인 자본율은 38%를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1년 당시 코스피 시장 내 외국인 보유 비중은 1월 35.65%에서 11월 30.97%까지 낮아졌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양 센터장은 “외국인 매도는 시장을 매도한다기보다는 급등한 업종은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가격 밸류에이션 매력 높은 업종을 매수하는 패턴”이라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저평가 업종으로 순매수 전환되고,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에 따른 고유가 진정·원화 안정으로 외국인 순매수 기조도 돌아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외국인 투자자가 차익 실현에 나서더라도 금융 투자 매수가 유입될 경우, 주가 영향력 자체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4월에도 외국인은 강세를 보여온 조선, 자동차, 건설 등의 업종을 매도하고, 기계, 상사·자본재, 2차전지 등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업종들을 매수하는 양상을 보였다. 당시 반도체를 제외한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두산에너빌리티(1조1309억원), 현대로템(4951억원), 삼성SDI(4749억원), SK이노베이션(3532억원) 등이 포함됐으며,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LS ELECTRIC(1조186억원), HD현대중공업(7441억원), 고려아연(6215억원), 현대차(5755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코스피가 예상보다 더욱 강력한 랠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과거 경기 확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20% 내외의 조정이 나왔던 사례들을 보면, 전고점까지 시간이 좀 걸렸을 뿐 전고점 돌파 후엔 강력한 랠리가 나타났던 사례들이 반복됐다”며 “과거 개인 자금은 4000포인트, 5000포인트, 6000포인트를 돌파할 때 급격히 유입됐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엔 전고점 돌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 “올해 수출 9000억달러 돌파 예상... 사상 첫 日 추월 기대”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日 연간 수출액 7000억달러 초반 반도체 외 타 산업 증가율 견고 中企 수출도 10% ↑... 고무적 현상 AI 기반 제조혁신·지역성장 중심 산업·통상·자원·지역 유기적 연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정부가 올해 연간 수출액 9000억 달러(약 1230조 원)를 돌파하며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수출 5강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2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연구원의 최근 수출 전망과 관련해 “9000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겠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한다”며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일본의 수출규모를 이기는 관계를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의 연간 수출액은 7000억 달러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우리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달성하면 기존의 홍콩(7536억 달러), 일본(7383억 달러), 이탈리아(7265억 달러) 등을 모두 제치고 세계 5위 수출국으로 도약한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연간 무역수지가 상·하반기 고른 흑자에 힘입어 사상 최대치인 219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장관은 최근의 수출 호조가 반도체

에만 의존한 착시효과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반도체 증가율이 워낙 압도적이라 다른 산업이 묻히는 경향이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타 산업 수출 증가율도 13.8~15% 수준으로 매우 견고하다”며 “반도체를 제외하고 15% 수준의 증가율은 좋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대기업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수출도 10% 늘어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 반도체를 제외하더라도 고무적인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런 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국, 인도 등이 중소기업의 소비재가 뚝

수 있는 시장으로 분류된다. 세계는 넓고 수출할 곳도 많은 만큼 하반기를 기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단순한 정책 수립을 넘어 산업·통상·자원·지역을 유기적으로 엮겠다는 취지로 ‘산업정책’ 대신 ‘산업전략(策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우리 산업과 수출을 추구에 비유하며 “축구를 이기려면 공격만 하든지 수비만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비가 격적이다. 중동 전쟁을 겪으면서 자원 안보가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입 다변화 이슈에 있어서도 광물 등 이런 분야도 단단히 해야겠다고 생

각하고 있다”며 자원 및 산업 안보의 중요성을 수비에 비유했다. 또 “축구를 이기려면 골도 많이 넣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스트라이커는 반도체 딱 하나”라며 “혼자서는 안된다. 두세명의 킥 플레이어가 있어야 한다. 하반기에는 경쟁력 있는 산업 만들기엔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를 연결할 미드필더 역할로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혁신 브랜드인 ‘맥스(M.AX·제조AI얼라이언스)’와 ‘지방(지역 성장)’을 꼽았다. 김 장관은 “미들맨도 필요한데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2월 산단 AX 분과를 신설하고 M.AX 확산을 위한 베스트 일레븐을 완성한 만큼 하반기에는 지역과 맥스를 중심으로 움직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제조 AI의 확산을 위해 개별 기업이라는 ‘점’이 모여 산업 생태계라는 ‘선’과 ‘면’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하며 안동 막걸리 제조업체의 AI팩토리 도입 사례를 언급했다. 김 장관은 “막걸리 발효 과정을 사람이 24시간 감시해야 했는데, AI 센서를 붙이니 사람이 붙어있을 필요가 없어졌다”며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도울 수 있는 기술적 ‘점’들을 전국 산단에서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지적에 대해서는 대전의 유명 제과점인 성심당을 예로 들었다. 김 장관은 “성심당의 경우

기름 냄새 가득한 튀김 공장 등의 고된 업무를 기계가 대체하면서 기존 인력은 더 쾌적한 곳으로 재배치됐다”며 “AI 도입은 사람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을 로봇 매니저로 재교육하고 전환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맥스 카리반’과 ‘맥스 아카데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장보고함 12척 규모)과 관련해서는 “(경쟁국인)독일은 아직 설계 중이지만 우리는 실체가 있고 가격 경쟁력도 우수하다”면서도 “캐나다가 전통적 우방인 유럽(나토)과의 전략적 관계를 고려할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순신의 12척 배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삼성전자과업 사태와 스튜어트스 코드 적용에 대해서는 “삼성이 지금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기로에 서 있다”며 “이번 시기가 반도체 경기를 이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잘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유가 대응책인 석유 최고 가격제 유지 시한에 대해서는 “전쟁이 종료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돼 유가가 90달러대 수준으로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면 해제 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리스크관리 파트너’ 역할에 충실할 것”

## 김태욱 한전 상임감사위원

“무거운 책임감·깊은 사명감 앞서 문제 본질 들여다보고 개선 책임 내부 출신 명예 걸고 헌신하겠다”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상임감사위원은 취임사에서 “상임감사위원이라는 중책을 짊어지고 한국전력에 다시 서게 되어, 반가움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사명감이 앞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국전력의 새로운 감사 지휘봉을 잡은 김태욱 상임감사위원(사진)이 공식 취임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 상임감사위원은 한전 내부 출신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철저한 개혁과 혁신을 예고했다.

28일 한전에 따르면 김태욱 상임감사위원이 전날(27일) 한전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상임감사위원은 아주대학교 전기공학 학과를 졸업하고 한전에 약 35년간 재직하며 기술기획부장, 광주전남본부장, 전력그리드본부장 등을 역임한 베테랑이다. 퇴직 후에는 대한전기학회 협동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폭넓은 현장 경험과

그러면서 “내부를 잘 안다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면죄부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제대로 개선하겠다는 책임의 선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감사위원은 한전이 국가 기간산업과 국민경제를 책임지는 조직이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비효율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회사 내에 남아 있는 일부 대만과 비효율, 조직 간 벽, 자원 배분 왜곡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영진의 판단을 존

중하되, 독립적 위치에서 위험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내하는 리스크관리 파트너’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 상임감사위원은 “열심히 일하면 면책되고, 일하지 않고 복지부동하면 감사 받는다는 말이 상식이 되도록 하겠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확증편향적 시각과 과도한 자료 요구, 몰아붙이기식 조사 방식을 지양하고 사전 컨설팅 중심 감사, 치유와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솔루션 감사로 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상임감사위원은 “한전은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새길을 만들어 온 자력이 있는 조직”이라며 “내부 출신이 상임감사를 맡으니 조직은 더욱 당당해지고, 혁신은 한층 더 내실있게 추진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전 출신의 명예를 걸고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협이 초청한 주한 대사관 20곳의 직원 및 가족.

## 농협중앙회, 주한대사관 DMZ 초청 행사

20곳 직원·가족 등 총 36명 참석

농협중앙회가 대사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농협 및 비무장지대(DMZ)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 농협의 주한 대사관 초청 견학 프로그램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28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이 행사에는 주한 대사관 20곳의 직원 및 가족 등 총 36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탈리아와 코스타리카, 케냐, 페루, 태국 등 5개국 주한대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농협은 그간 농업인의 삶의 질 향

상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기능 및 성과를 국제사회에 소개하기 위한 자리다.

참석자들은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강호동 농협회장과 환담한 뒤 강원 철원 김화농협을 찾았다. 현지에서 마곡종합처리장(RPC),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하나로마트 등 농협 경제사업장을 차례로 둘러봤다.

또 DMZ 생태평화공원을 방문해 접경 지역의 생태·평화적 가치와 지역농업 환경을 체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국내은행 전용 ‘해외사업금융보험’ 기획

무보, ‘신성멜타테크 태국 법인’에 3000만달러 운전자금 ‘1호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금융기관과 협업해 국내 중소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 나선다.

무보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은행 전용 해외사업금융보험 특별상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우리기업의 해외법인이 시

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던 기존 해외사업금융보험’을 국내은행의 수요와 금융환경에 맞춰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해외 여신 시장은 낮은 금리를 앞세운 외국계 은행들이 주도해왔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규모와 신용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들은 해외 현지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보는 이를 해소하고자 국내은행 맞춤형 상품을 기획하였다. 보험료할인·한도

우대·심사 간소화 등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보는 이번 특별상품 출시에 발맞춰 지난 27일 전자부품 제조사인 신성멜타테크 태국 법인에 3000만 달러 규모의 운전자금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은 중소기업 ‘1호 지원’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해외 현지법인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새로운 추세”라며 “국내은행과의 밀착 공조로 해외진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부산항만공사, ‘바다주간’ 해양환경 정화 나서

‘해녀와 바다’와 쓰레기 1490kg 수거

부산항만공사(BPA)가 바다의 날(5월 31일) 및 바다주간(5월 20일~5월 31일)을 맞아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특히 지역 해양정화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힘을 모았다. 수중·수변·연안을 아우르는 공동 환경정화 활동에서, 이들은 해양 생태계 보전과 환경 보호의 중

요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뒀다.

공사는 지난 16일 지역 해양정화단체 ‘해녀와 바다’와 함께 별빛수로 일대에서 수초 및 수중 쓰레기 1490kg을 수거했다.

22일에는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시설공단 임직원 및 가족, 일반 시민봉사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북항 친수공원 및 별빛수로 일대에서 ‘EM 흙공 던지기’와 ‘플로깅’ 활동을 병행하며, 수질 개선과 수변환경 정화에 나섰다. /세종=김연세 기자

# 체험학습 사고 교사면책 확대... 현장선 “입증 부담 여전”

교육부, 학교안전법 개정 추진  
교의·중과실 없으면 면책 확대  
업무상과실치사상도 포함 방침  
법률지원·보조인력도 늘리기로  
특례법·국가소송책임제 요구



/유도이미지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는 그대로”라며 추가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안전사고관리지침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교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교사와 학교 관계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법 제268조에 따

른 형사책임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이다.

개정안은 기존보다 면책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은 교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교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도 교원뿐 아니라 보조인력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 내용도 포함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청 전담팀과 전담 변호사를 통한 법

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보조인력 확대와 민간 위탁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보조인력 배치 기준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경찰청도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수사 지침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학부모와 학생 대상 안전교육 참여를 강화하고,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학교 민원대응체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교원단체와 학교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만으로는 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사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현장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교청은 특히 “교원이 지침을 지켰는지와 과실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며 “교사가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

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처럼 교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형사처벌 자체를 제한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을 추가 요구했다. 또 체험학습 사고와 아동학대 신고 등 교육활동 관련 소송을 국가와 교육청이 맡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도 촉구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학교가 숙박형·소규모 체험학습이나 교내 대체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주호 회장은 “사고 발생 시 모든 사법적 책임과 행정 부담을 개별 교사에게 지우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장체험학습 정상화는 어렵다”며 “교사들이 안전사고 불안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서울 농촌유학 2학기 모집... 강화·옹진 추가

서울시교육청, 내달 5일부터 접수  
초1~중2 서울 학생 신청 가능  
유학비 월 최대 60만원 지원



지난해 11월 28일 제주 농촌유학 운영학교인 성음초에서 열린 ‘벨롱벨롱 꿈자랑 발표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자연속 공동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의 2026학년도 2학기 참가자 모집에 나선다. 참여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나며 누적 참여 인원이 3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부터는 인천 강화·옹진 지역이 신규 유학지로 추가되고 지원 기간도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2학기 농촌유학 신규 참가 학생을 오는 6월 5일부터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 지역에서 생활하며 생태전환교육과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2021년 시작된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은 매 학기 참여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올해 1학기 기준 참여 학생은 558명으로 집계됐으며, 누적 참여 인원은 3228명이다. 신청 대상은 서울 지역 공립 초등학교 1~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학생이다. 유학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이며 연장도

가능하다. 거주 유형은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으로 운영된다.

유학 가능 지역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강화·옹진군이다. 특히 인천 강화·옹진 지역은 올해 처음 추가됐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기 단위 모집 외에도 단기체험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 학생에게는 가구당 인원 수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유학

비가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요구를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금 지급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했다.

2학기 참가 희망 학생은 오는 6월 12일 낮 12시까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가배정과 유학지 사전 방문 등을 거쳐 7월 9일 최종 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유학생들은 8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모집에 앞서 6월 2일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세부 모집 내용은 각 시·도 농촌유학 누리집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농촌유학은 단순한 체험 활동을 넘어 학생들이 삶의 방식과 배움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교육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인천, 에너지기술공유대학 공모 선정

6년간 215억 투입 전문인력 양성

인천광역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2026년도 제1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너지기술공유대학)’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지역 에너지산업 기반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기관·지자체가 협력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총 215억 원(국비 170억 원, 지방비 45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인천 시 부담은 13억 원이다.

인천시는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인천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경기도와 함께 가천대학교, 경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경기산학융합원 등이 참여하는 광역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과정 개발과 성과 확산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 분야는 해상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섹터 커플링, 전력계통 및 전력변환 등 차세대 에너지 핵심 기술로,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해 설계된다.

시는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과 에너지기술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해상풍력 계통 연계,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전환 최적화 등 대학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학연 프로젝트와 현장실습,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결합해 교육과 취업이 연계되는 상호성 있는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남동국가산업단지과 주안·부평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 주요 산업단지의 에너지 전환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에너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기술 경쟁력 강화는 물론,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세영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선정은 인천과 경기도의 산업 기반과 대학 역량을 결합한 광역 협력 모델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에너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인천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10개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서울시, 알리·테무·쉬인 제품 검사  
우양산·우비서 납·가소제 초과  
판매 중단 요청·추가 검사 예고

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어린이용 우양산 4개 제품에서는 납 초과 검출과 물리적 안전기준 미달이 확인됐다.

일부 제품의 우산살 고정대와 버튼 고정핀에서는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의 최대 5.8배 검출됐다. 또 끝 살과 커버가 날카롭거나 기준 크기에 미달해 베임·찔림 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용 우비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3.6배 초과 검출됐고, 일부 제품은 조임 끈과 장식물 구조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걸림·질식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잡화 2개 제품은 pH 기준을 초과했고, 상하의 세트 제품에서는 노닐페놀이 기준치 대비 4.3배 검출됐다. 완구 2개 제품도 납 검출과 날카로운 끝 발생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오는 6월 어린이용 완구와 장화, 여름철 섬유제품 등에 대한 추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름철 어린이용 우양산과 우비 등의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 만큼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국내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며 “앞으로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평택, 2027년 국·도비 7916억 확보 총력

주요 예산 확보 보고회 개최  
미군이전지원법 가산분 반영 추진

평택시가 2027년도 주요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26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 주재로 실·국·소장과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도 주요 국·도비 예산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기획예산과와의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각 실·국·소별 주요 사업 보고가 이어졌으며, 국고보조금 확보 전략과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국비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 방안과 중앙부처 협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평택시는 2027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총 7916억 원을 신청했으며, 이 중 915억 원은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라 가능한 사업에 대해 추가로 반영을 요청한 금액이다. 시는 해당 가산분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서별 신청액을 보면 복지국이 5608억 원(가산 686억 원 포함)으로 전체의 약 70.8%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기후환경국은 436억 원(가산 12억 원 포함)을 신청했다.

주요 국·도비 사업 44건에는 시 자체 추진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평택(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대한민국은 내일도 맑음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의 본분을 다하여  
개인과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 벤처모펀드 조성을 통한 벤처생태계 구축
- 지역균형발전 지원
- 청년·취약계층 재도약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부대출 공급 확대
- 연체 차주 재기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오유경 “신약허가 기간, 세계최단 수준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오 처장, ‘허가·심사 혁신’ 특별 강연  
수요자 중심 ‘규제 서비스’ 의지 밝혀  
“1차 검토의견, 60일 이상 줄어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병렬·동시 심사를 통해 신약허가 기간을 세계 최단 수준인 240일로 단축한다. 신약 개발 전주기에 제한없는 소통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8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열린 ‘제45차 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 참석, ‘허가·심사 혁신과 규제서비스 대전환’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오유경 처장은 “신약을 개발하는 업계에는 시간이 경쟁력이고 환자에게 하루하루가 희망이다”라며 “지나해부터 인력 선발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고, 지난 1월부터 허가심사 단축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또 규제 공급자 중심의 소극



오유경 식약처장이 28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열린 ‘제45차 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 참석, ‘허가·심사 혁신과 규제서비스 대전환’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적, 관리형 기관에서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규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허가 신청, 심사, 보완, 최종 허가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기업이 규제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오유경 처장은 2대 핵심 전략으로 ▲동시·병렬 심사 전환과 ▲제한없는 소통을 내세웠다.

오 처장은 “허가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만 30만장에 달하는 데 제한된 인력

으로 이를 순차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었다”며 “비임상, 임상, 품질 등 단계를 병렬·동시 심사로 전환하면 1차 검토의견이 나오는 기간을 기존 87일에서 25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 심사가 빨라지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 우려도 많은데 총원 인력의 상당수를 안전성 부문에 투입했다”며 “안전을 꼼꼼히 챙기면서도 신속한 허가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조했다.

기존 허가 신청 전 2회로 제한됐던 대면회의도 제한없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오 처장은 “허가 심사의 전 주기에 걸쳐 지속 소통하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을 늘리도록 소통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안전을 꼼꼼히 챙기면서도 속도는 세계 최고로 더하고, 적극적인 소통 서비스 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찬포럼에서는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국회의원 초청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 대신, 참석한 CEO와 보건복지 분야 기관 관계자들이 오유경 처장과 깊이 있는 질의응답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전혜숙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최일선의 규제기관인 동시에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혁신파트너”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과 산업 발전은 결코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metro

## 종근당산업 ‘벨포레스트용인’ 인수

고품질 시니어케어 서비스 확대

종근당산업은 프리미엄 요양시설 ‘벨포레스트용인’을 인수하며 시니어케어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는 프리미엄 노인 요양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남부 지역까지 고품질 시니어케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했다.

종근당산업은 2021년 고품격 개인 맞춤형 요양원 ‘벨포레스트강일(84베드 규모)’과 2023년 최고급 전문요양시설 ‘더헤리티지너싱홈(130베드 규모)’을 인수한 데 이어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소재 ‘무지개실버케어’를 인수하여 신규 브랜드 ‘벨포레스트용인’으로 전면 리뉴얼 후 개원할 예정이다. 운영은 더헤리티지너싱홈이 맡는다.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가족면회실, 공동거실 등 다양한 생활·재활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병원형 시설이 아닌 ‘집 같은 편안함’을 목표로 한다.

이세경 기자



코아시스 2호점 조감도. /현대백화점그룹

# 뷰티업계, 세대교체 활발... 역대급 실적 이어간다

코스맥스그룹 최대주주 변경 공시  
이병만·이병주 형제경영 본격화

콜마그룹 주식반환 소송 일단락  
2세 체제 불확실성 해소 국면

K뷰티의 글로벌 흥행을 견인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제조개발생산(ODM) 양대 산맥인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2세 경영 체제 전환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창업주들이 후계자들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코스맥스그룹의 지주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는 지난 27일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장



이병만 코스맥스 대표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

외매도로 인해 최대주주가 기존 서성석 외 6인에서 이병만 외 9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거래로 서 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22.61%(217만1419주)에서 13.83%(132만8079주)로 낮아졌다. 최대주주 일가 및 특수관계인의 총 소유비율

은 기존 62.98%에서 63.01%로 소폭 확대됐다.

서 회장의 지분을 매입한 에스에스와이(SSY)와 비제이에이치(BJH)는 각각 이병만·병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 회사다. 이로써 이병만·병주 형제의 직·간접 지분율은 각각 24.34%로 균형을 이룬다. 장남의 경우 개인 19.95%, 에스에스와이 4.39%, 차남은 개인 10.52%, 비제이에이치 4.39%, 또 다른 소유 회사 코스엠엔엠 9.43% 등이다. 현재 장남은 코스맥스를, 차남은 코스맥스비티아이를 맡아 형제 경영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콜마그룹은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매듭지으며 2세 체제 전반기의 불확실

성을 해소했다.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은 장남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식 반환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고, 윤 부회장 측이 동의하며 소송이 최종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두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권 안정화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배경에는 역대급 실적이 뒷받침됐다.

코스맥스는 올해 1분기 매출 6820억원, 영업이익 53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 3% 성장했다. 한국콜마 역시 1분기 매출 7280억원, 영업이익 789억원으로 각각 11.5%, 31.6% 급증했다. 두 회사 모두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롯데그룹, 주요 사업군 실적반등 성공

포트폴리오 리스트럭처링 계획 발표

롯데지주는 전날 기업설명회(IR)를 열고, 올해 1분기 그룹 주요 사업군의 실적 반등 성공과 함께 고강도 포트폴리오 리스트럭처링 계획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주요 투자자 30여 명과 롯데지주 CFO 및 주요 계열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올해 1분기 롯데의 식품, 유통, 화학, 호텔 등 핵심 사업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한 7876억 원을 기록했다. 계열사별로는 롯데쇼핑이 백화점 성장세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2529억 원(+71%)을 기록하며 실적을 견인했고, 롯데건설(504억 원, +1226%), 롯데델푸드(358억 원, +118%), 호텔롯데(745억 원, +83%) 등 전 사업군의 수익성이 크게 개

선됐다. 롯데케미칼 역시 스프레드 개선과 운영 최적화로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롯데는 체질 개선을 위한 비핵심·저수익 사업 구조조정도 가속화한다. 지난해 롯데델푸드 증평공장과 롯데케미칼 파키스탄 법인 매각 등에 이어, 올해도 롯데렌탈 매각과 롯데케미칼 대산·여수공장 사업재편 등 저효율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유동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미래 신사업인 바이오와 2차전지 소재 투자도 가시화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올 하반기 송도 1공장 준공을 통해 글로벌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며,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ESS 배터리 및 AI용 회로박 중심으로 생산 체제를 전환한다. 롯데케미칼은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비중을 확대한다.

신원선 기자

## 롯데온, ‘스웽웨어 체크리스트’ 행사

수영복 등 물놀이 용품 할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수영복과 물놀이 용품 할인전에 돌입했다. 이른 더위로 수영장·워터파크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능성과 디자인을 세분화한 상품 구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은 오는 6월 7일까지 ‘스웽웨어 체크리스트’ 행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성인·아동 수영복과 래쉬가드, 아쿠아슈즈 등 물놀이 관련 상품을 할인 판매하고 스타일별 큐레이션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에는 배럴, 아레나, 레노마 등 브랜드가 참여한다. 일부 상품은 최대 50% 할인 판매하며 단독 특가 상품에는 추가 할인 혜택도 적용한다.

롯데온은 입문용 실내 수영 세트와 함께 휴양지용 스웽웨어 라인업도 확대했

다. 하이컷·미들컷·로우컷 등 힙 라인과 타이백·U백·X백 등 백 스타일별로 상품을 구분해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노출 부담을 줄인 지퍼형 수영복과 반신 수영복, 래쉬가드 등도 별도 카테고리 운영한다. 아쿠아슈즈와 수모 등 물놀이 액세서리도 함께 선보인다.

키즈 제품군에서는 래쉬가드와 판초티월, 생존수영 키트 등을 중심으로 상품군을 확대했다.

장선우 롯데온 패션실장은 “최근 급격히 기온이 오르면서 이른 물놀이를 즐기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어 스타일과 기능 등에 따라 수영복을 세분화해 제안하는 행사를 기획했다”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기 전 미리 준비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현대홈쇼핑 ‘코아시스’ 2호점 오픈

현대홈쇼핑이 오프라인 뷰티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최초로 선보인 뷰티 편집숍 ‘코아시스(Coasis)’의 추가 매장을 잇달아 열며 상권별 맞춤형 전략 강화에 나선다.

현대홈쇼핑은 현대백화점 전호점에 코아시스 2호점을 오픈하고, 다음달에는 현대아웃렛 가동파이프점과 동대문점에 각각 3·4호점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코아시스는 현대홈쇼핑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남양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에 처음 선보인 뷰티 편집숍이다.

현대백화점 전호점 지하 1층에 들어서는 2호점은 61㎡ 규모로 조성된다. 백화점 고객의 고기능성 화장품 수요를 반영해 해외 스킨케어 브랜드존을 강화하고, 벽돌과 어두운 톤의 인테리어를 활용해 편안한 쇼핑 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 뚜레쥬르 ‘쿨브레드’ 2종 출시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여름철 차갑게 즐길 수 있는 ‘쿨브레드’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시원한 크림과 과일, 크림치즈 등을 활용해 여름철 디저트 수요를 겨냥한 것이 특징이다.

‘한 컵의 얼그레이&레몬’은 아이스컵 형태의 빵 안에 얼그레이 크림과 레몬 커스터드를 넣은 제품이다. ‘쫄득 딸기우유 크림빵’은 쫄득한 식감의 빵 속에 딸기우유 크림과 크림치즈를 넣은 제품이다.

신원선 기자

# 타기 직전까지 끌어올린 반전의 맛

셰프의 킥  
브라운 버터 오일



캐러멜라이즈드  
에니언

벤트치즈번스



스모크  
비프패티

By chef 비바닥한 천재

# 벤트비프버거

단품 8,800원 | 세트 10,700원

LOTTERIA™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술·심리치료 지원... MG재단, 장애가족에 희망 전달

장애 아동·가족에게 2억 기부  
정서적 회복·재능 개발 등 도와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푸르메재단과 함께 'MG장애가족지원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 아동과 가족 구성원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억원 규모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전달식에는 김인 새마을금고재단 이사장과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MG장애가족지원사업은 장애 가족 전체의 정서적 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총 101명의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예술적 재능 개발을 지원하



김인 새마을금고재단 이사장(오른쪽)과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MG장애가족지원사업' 전달식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재단

고,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심리·교육 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장애 아동 미술 활동 지원 분야

에서는 예술적 잠재력을 가진 영재 아동에게 최대 400만원, 미술 입문 아동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참여 아동들의 작품을 바탕으로 공모전과 전시회 개최도 추진할 계획이다.

비장애 형제자매에게는 최대 150만원 규모의 심리치료 및 교육비를 지원한다. 장애 가족 내 비장애 형제자매가 자신의 감정과 어려움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족 구성원 모두를 아우르는 돌봄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재단 이사장은 "장애 아동에게는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기회를, 형제자매에게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전하고 싶었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장애 가족이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소진공, '방재의 날' 국무총리 표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방재의 날-국가재난관리 유공'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왼쪽)이 '2026년 방재의 날-국가재난관리 유공'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고 공단 이용홍 과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 코웨이, '2026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코웨이가 한국거래소 주관 '2026 밸류업 우수기업'에 선정되며 금융위원장을 받았다.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밸류업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서장원 코웨이 대표(오른쪽)가 이석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 기정원·하나은행, 중기 수출입 아카데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하나은행과 지난 27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2026 스마트공장 맞춤형 수출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정원과 하나은행이 지난 27일 진행한 '스마트공장 맞춤형 수출입 아카데미'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기정원



## 지엠하마음재단, 안심 방충망 설치 봉사

지엠하마음재단코리아(지엠하마음재단)는 한국GM 임직원과 인천 지역 취약계층 여름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 방충망 설치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심 방충망 설치 안전 교육 및 현장 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GM 임직원들. /한국GM



## 용마로시스, 유니폼 활용에 친환경 실천

용마로시스는 지난 26일 경기도에 위치한 안성2물류센터에서 셀코퍼레이션과 페유니폼 업사이클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의 첫 단추로 용마로시스는 페유니폼을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지속가능경영 프로젝트인 'RE:Born(리본)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용마로시스



이희근 포스코 사장(가운데)과 급식대가 이미영 셰프, 오창석 포항제철소 제강부 명장이 포항 송도동 송림노인복지관에서 특별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포스코

# 포스코, 22년간 416만명에게 무료 급식

식사 제공 넘어 어르신 소통의 장 역할

포스코가 포항·광양 지역 결식 우려 이웃을 대상으로 22년째 무료급식소 '나눔의 집'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포스코는 포항·해동·송도·제철동과 광양·광영·태인동 등 5곳에서 운영 중인 '나눔의 집'이 지난 22년간 일평균 약 903명, 누적 416만 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나눔의 집'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결식 우려 이웃의 식사 지원을 위해 마련된 무료급식소다. 식사 제공을 넘어 지역 어르신들이 안부를 나누고 교류하는 소통 공간 역할도 하고 있다.

포스코는 올해 '나눔의 집' 개소 22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포항 송도동 송림노

인복지관에서 특별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 송도동은 포항제철소 제강부가 1994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30년 넘게 교류해온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는 이희근 포스코 사장이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현장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요리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급식대가' 이미영 셰프도 함께해 특식을 제공했다.

이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든든한 울타리로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도시락과 간편식을 지원해 급식 공백을 줄였다. 또 포스코1%나눔재단의 '희망공간' 사업을 통해 '나눔의 집' 지붕과 전기 시설을 보수하는 등 시설 개선도 진행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

# '벤처 대부' 故 이민화, 과학기술유공자 헌정

(벤처협 명예회장)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헌정식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의 선구자인 고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이 '제9회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헌정식'에서 융합·진흥 분야 과학기술유공자로 헌정됐다.

28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헌정식'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이민화 명예회장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국내 벤처 인프라 구축에 열정을 기울인 선각자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명예회장은 1985년 의료장비 초음파 진단기를 개발·생산하는 '메디슨'을 설립,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킨 1세대 벤처기업인이다. 이후 1995년 벤처기업협회를 설립해 초대회장을 역임했으며 코스타 설립 추진 및 벤처기업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벤처 생태계의 뼈대를 세웠다.

또한 2009년 초대 기업호민관(현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활동하며 벤처기업



고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의 유가족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헌정식'에서 과학기술유공자 증서와 명패를 수여받은 후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겸 부총리(왼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협회

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는데 힘썼으며, 모교인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전파했다. 아울러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등을 지내며 벤처업계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

이날 헌정식에는 이민화 명예회장을 기리기 위해 유가족이 참석해 대통령 명의의 과학기술유공자 증서와 명패를 수여받았다.

벤처협회 관계자는 "이민화 명예회장은 기업이 정신과 혁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후배 벤처기업인 양성에 큰 역할을 하셨다"면서 "협회는 앞으로도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벤처기업의 혁신 성장과 건강한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 창진원, 대기업·스타트업 매칭 행사 개최

협업 돕고 맞춤 투자 상담 진행

창업진흥원이 대기업 7개사와 도약기 창업기업을 잇는 교류 행사를 펼쳤다.

28일 창진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교보생명보험,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HD현대중공업, KT, LG전자, SK텔레콤과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을 지원하는 47개 창업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창업도약패키지 대기업-창업기업 만남의 날(밋업데이)'을 열었다.

행사는 유종필 창진원장과 대기업 관계자 간 차담회를 시작으로, 대기업과 창

업기업간 1대1 비즈니스 매칭 미팅과 자금력 확보를 위한 투자상담, 투자유치발표(IR 피칭)를 위한 발표 지도(스피치 코칭) 등으로 진행했다.

또 사전 연결된 대기업 현업 부서 관계자와 창업기업 간의 심층 면담을 통해 기술 검증(PoC), 공동 상품 개발, 구매 및 전략적 투자 등 협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투자사와의 맞춤형 투자 상담도 함께 이뤄졌다.

유종필 원장은 "행사가 단순한 만남을 넘어 혁신적인 공동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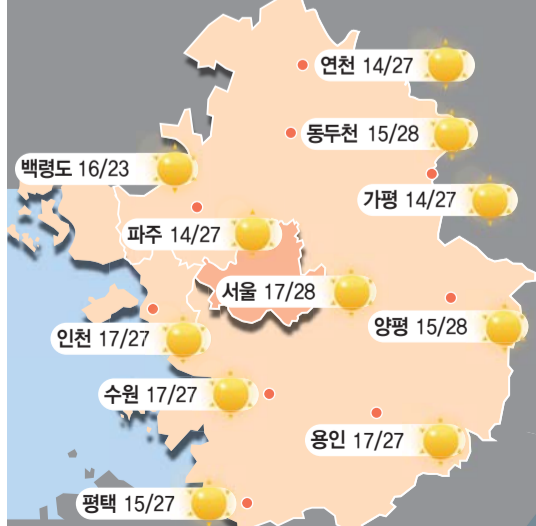
##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4 | 해질 / 19:45

5월 29일(금)  
음력 : 4월 13일

수도권 날씨  
17~28°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NARA CELLAR

# 역시! 몬테스



#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한 기업인의 어떤 생각



김승호의  
시선

“나쁜 직원은 총살시켜야 한다.”

얼마전 만났던 한 기업인이 회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쁜 말은 기자의 뇌리를 쪼개듯 때리지 않는다.

발언이 나온 배경은 이렇다.

‘나쁜 직원’이란 근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성과가 좋지 않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기업인은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 꿈이다. 좋은 회사는 좋은 직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좋은’에 대비되는 ‘나쁜’ 직원을 도려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총살’이란 말을 서슴지 않고 한 것이다.

회사 경영을 책임지는 CEO 입장에서선 일 잘하고, 순종하고, 다른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 직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나쁜 직원을 ‘프리라이더(free rider)’ 또는 ‘무임승차자’라고도 한다. 책임을 지지 않거나 돈을 내지 않으면서도 혜택을 함께 누리

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물론 성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모두 프리라이더라며 싸잡아 비난할 순 없다. 구조적으로 업무가 과도하거나 교육이 부족하거나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총살’을 시켜야 할 정도로 심각하고 압적인 직원을 골라내는 것은 온전히 기업의 몫이다. 거기엔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

속아내는 과정에서 단순히 ‘노킴’이나 개인적일 수 있는 ‘평판’은 안된다. 반드시 정확한 현상 파악과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성급하게 징계를 내리거나 퇴사를 압박하기보단 심도 있는 면담과 원인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주어진 업무가 지나치게 많진 않은지, 업무 역량이 부족한지, 일이 적성에 맞는 지, 보완 교육이 필요한지,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지, 건강 이슈가 있는지, 동기 부여가 부족한지 등 원인은 다양하다.

업무 역량이 부족하거나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면 ‘성과 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능력을 올려줄 필요가 있다.

업무가 맞지 않거나 다른 일에 특기가 있

다면 직무 재배치도 고려할 수 있다. 건강이 이슈 있다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휴가 등을 통해 시간을 줄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절차나 과정을 모두 거치고도 조직이 끌어안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럴뎨 인사위원회 등 절차 밟아 방향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해고가 쉽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선 더욱 조심스럽다.

이런 이유로 경영계에선 틈만나면 ‘고용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엔 ‘쉬운 해고’가 담겨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선 열띤 논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향을 정해야 한다.

오너나 사장님들은 종업원들이 주인 의식이 없다며 늘 아쉬워한다. 그러나 현실은 주인 의식을 갖기보단 주인을 의식하며 일하는 게 더 낫다.

대기업은 주로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시스템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은 사람의 영향이 크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자는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작은 기업일 수록 리더의 철학이 더욱 중요하다.

조직에서 암적인 존재를 ‘제거’하는데 ‘총살’이란 단어를 쉽게 꺼내는 경영자의 속마음이 궁금하다. /bada@metroseoul.co.kr

## 알뜰폰 시장,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



기자 수첩  
조민선 (IT부)

반년에 한 번 더 싼 요금제를 찾아 통신사를 옮기는 일은 알뜰폰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번거로움에도 가입자가 몰려 0원 요금제까지 등장했다. 통신3사 요금제에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선 이례서 남는 게 있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중소기업의 가격적 가격 정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가능했다. 정부는 2010년 당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에 의무적으로 통신망을 도매로 제공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도매 가격도 정부가 정해왔다. 이후 통신사가 정부에 지불하는 전파사용료를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전액 면제하기까지 했다.

최근에는 정책이 반전됐다. 올해부터 알뜰폰 사업자들도 전파사용료의 50%를 내고, 내년에는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통신망 도매 대가 산정에서 빠지기로 하면서 SK텔레콤이 주도권을 갖고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사정은 복잡해졌다. 통신망을 재판매하는 중개 사업만으로 수익을 창출해왔는데, 정책 변화로 비용 부담도 커졌다. 한때 치열하게 경쟁하던 사업자 일부는 재무 악화로 문을 닫았다. 렌탈 플랫폼 등으로 사업 확장에 성공한 몇몇 기업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가장 큰 벽은 통신 3사다. 이들은 알뜰폰 시장 초기에 이미 법인 인수와 자회사를 통해 저가요금제 수요를 흡수했다. KT·LG유플러스가 2개, SK텔레콤이 1개를 운영하고 시장 점유율은 50%에 육박한다. 40여개 중소기업체가 나머지 시장을 나눠 가져야 하는

셈이다.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던 금융 기업과도 사정은 다르다. KB국민은행은 5년간 600억원대 누적 적자에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세종텔레콤은 2024년 영업손실 60억원을 내고 시장에서 철수했다.

통신 산업에서 과도한 가격 경쟁의 결과는 정부 개입이었다. 후발 주자를 키우기 위한 정책은 결국 보조금 경쟁으로 이어졌다. 보조금 상한선 마련이 골자인 단통법 시행 전에는 갤럭시 S4가 5만원에 팔리기도 했다. 당시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던 통신3사와 6개월 무료를 내세운 알뜰폰 업체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

알뜰폰을 육성하자던 본래의 취지는 흐려졌고, 더 싼 요금제 중심의 경쟁만 남았다. 결국 정부 정책은 알뜰폰 시장 생태계를 기업의 자생력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거대 자본력을 가진 대형 사업자들의 생존 방식은 지켜봐야 할 일이다. /msjo@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9일 (음 4월 1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외지로 나가지 마세요. 60년생 이익도 없고 고생만 하게 됩니다. 72년생 소원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84년생 마음의 안정을 취하여라, 조용히 쉬면 도움이 됩니다.



49년생 생각지도 않았던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61년생 몸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73년생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세요. 85년생 남과 다투지 말고 한발 물러서면 편합니다.



50년생 망신을 당할 것입니다. 62년생 슬픈 일로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74년생 바라는 꿈이 너무 허황된 것 같습니다. 86년생 집안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51년생 독선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63년생 서쪽으로 가면 길합니다. 75년생 남매만 당하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87년생 길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52년생 막혔던 재물의 물꼬가 터지는구나. 64년생 광고를 열심히 한 만큼 물건은 많이 팔릴 것입니다. 76년생 한 팔을 거들음이 이익이 됩니다. 88년생 도움을 이득을 달고 옵니다.



53년생 먼저는 흥하고 뒤에는 고통을 얻게 됩니다. 65년생 독한 면을 보임도 이득이 됩니다. 77년생 속을 상하게 하는 자식이 나중엔 효자됩니다. 89년생 현장 경험도 큰 도움이 됩니다.



54년생 분수에 맞는 투자를 하세요. 66년생 문제를 깊이 파고들면 실속이 따릅니다. 78년생 성에 안차니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90년생 남자의 명예는 돈으로 살수 없음을 명심하세요.



55년생 사기 당하기 십상이니 각별히 조심하세요. 67년생 마음속의 근심은 태산처럼 무겁습니다. 79년생 지갑 조심 돈 조심 불량배까지 조심하세요. 91년생 남편이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운입니다.



56년생 문어발식 확장은 결국 공멸로 이어집니다. 68년생 일을 벌일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세요. 80년생 명예도 높아지고 하는 일도 잘 풀립니다. 92년생 하루가 편한 날입니다.



57년생 되도록 나서지 않는 것이 이득입니다. 69년생 서류상의 문제라면 풀릴 기미가 보입니다. 81년생 보험등은 이득을 창출 합니다. 93년생 명예를 양보하고 실리를 취함이 이득입니다.



58년생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풀립니다. 70년생 노력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습니다. 82년생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는 날입니다. 94년생 애인과의 외출은 흥한 기운입니다.



59년생 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71년생 원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83년생 물리적인 충돌 사고가 나도 감정보다 법으로 해결하세요. 95년생 애인과의 여행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 김상회의四季

### 목불견첩

‘목불견첩’ 눈은 눈썹을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서 남의 허물은 볼 줄 알 아도 자신의 허물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사성어가 그렇듯 역사적인 유래가 살아 숨 쉰다. 역사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현재진행형 비유가 된다. 목불견첩에 대한 교훈이 자못 실제적이다. 춘추전국시대 초나라 장왕이 월나라를 치려 하면서 생긴 일화다. 당시 초나라는 강한 나라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월나라를 공격하려 하니 책사인 두자가 그 이유를 문자 장왕은 말하기를, “월나라는 정치가 어지럽고 군대가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에 두자는 “지혜는 눈과 같아서, 능히 백 보 밖은 보면서도 스스로 그 속눈썹은 보지 못합니다.

왕의 군대는 스스로 진(秦)나라와 진(晉)나라에게 패하여 땅 수백 리를 잃었으니 이것이 군대의 약함이고, 국경 안에서 도둑질을 하는데도 관리가 급하지 못하니 이것이 정치의 어지러움입니다.” 초나라가 전쟁에서 연패 중이고 국내에 도적이 날뛰고 있어 약하고 어지러움이 월나라보다 낫다 할 수 없는데 월나라를 치고자 하는 것은 ‘눈이 백 보 밖은 보면서 자기 눈썹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며 만류했다. 초나라 장왕이 이에 정벌 의지를 그만두었다. 바른 지혜란 남을 보는 데에 있지 않고 스스로를 보는 데에 있다는 것이며,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라 풀어 말해도 좋으리라. 또는 자기 눈 밑의 대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며 비난하는 태도라는 비유였다. 그래서 한비자는 이 초장왕과 두자 간에 있었던 일화를 “스스로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총명(明)하다고 이른다.”고 했다. 특히나 요즘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않는다. 자기 분위의 해석과 견해는 아전인수가 되고 만다. 나르시스트가 많아진 탓일까?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3	4	2		9	6	8
4				8	9	7	
	8						
		2					7
	5		9		1		2
6					1		
							4
		7	1	9			5
5	2	9		4	8	3	7

5			9	8		2	3
	5	2	6				7
7			8				2
						7	4
6							9
8	9	5					
	8				4		2
	6				2	1	8
1	7		6	5			8

1	2	8	9	7	6	2	9
9	8	2	9	6	1	2	7
8	7	2	1	8	9	1	6
7	6	1	2	9	8	8	9
9	2	8	1	6	7	9	2
2	8	9	7	1	2	6	8
6	9	7	9	2	1	8	7
2	1	2	6	8	1	9	2
8	9	6	5	2	8	2	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2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2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보이지 않는 보호, 피부는 더 편안해진다.

보호를 넘어, 피부를 위한 케어  
**샬롯 루시드**

자외선 차단과 피부 보습 케어를  
동시에 담은 UV 차단 투명 패치

- # 눈밑부터 광대까지 완벽 커버
- # 숨 쉬는 통기성 나노 원단
- # 접착제 없이 밀착되는 수분 기반 패치
- # UV-A 98% / UV-B 99% 차단
- # 0.05mm 초슬림 투명 패치
- # 無계면활성제로 안심 사용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솔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 ‘화이트판 돈 멜초’ 아멜리아...100일의 기다림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28

100일. 화이트 와인의 완벽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시간.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가장 좋은 시기에 수확할 때까지 말이다.

100일간 포도나무가 제 할 일을 다 했다면 와인 메이커의 역할은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전부다. 차가운 해풍과 사막을 동시에 마주한 극한의 환경이 선사한 미네랄과 생동감이면 충분하다. 돈 멜초와 같이 칠레를 넘어 전세계 화이트 와인의 아이콘을 꿈꾸는 ‘아멜리아 사르도네’다.

칠레 콘차이토로(Concha y Toro)의 총괄 테크니컬 디렉터 마르셀로 파파(Marcelo Papa)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참가 등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



칠레 콘차이토로 총괄 테크니컬 디렉터인 마르셀로 파파가 한국을 방문해 ‘비나 아멜리아’의 설립을 알렸다.

고 산지의 개성을 정직하게 담아내는 것이 양조 철학”이라며 “기술적인 기교보다는 포도밭 자체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주력한다”고 강조했다.

콘차이토로는 칠레 최대 와인 그룹이다. 한국에서 ‘국민와인’으로 잘 알려진



왼쪽부터 아멜리아 사르도네 2023년, 2024년 빈티지. /아영FBC

‘카시예로 델 디아블로’와 칠레 와인의 위상을 바꾼 ‘돈 멜초’ 등을 보유하고 있다. 테크니컬 디렉터가 쉽게 와닿지 않는다면 콘차이토로 그룹의 와인 양조를 총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마르셀로의 이번 방문은 ‘비나 아멜리아

(Vina Amelia)’의 독립을 알리기 위해서다. ‘비나 돈 멜초’의 독립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돈 멜초가 칠레 레드 와인의 위상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독자적인 브랜드로 차별화하기 위해 2019년에 비나 돈 멜초가 생겨났다.

그는 “앞으로 비나 아멜리아는 사르도네와 피노누아 생산에 집중해 양조 전문성을 극대화하겠다”며 “아멜리아를 글로벌 화이트 아이콘으로 키워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돈 멜초와 같이 아멜리아 역시 독보적인 테루아를 앞세웠다. 칠레 최북단인 리마리 밸리에서도 케브라다 세카(Quebrada Seca) 빈야드다. 태평양에서 불과 23km 거리인 동시에 아타카마 사막 끝자락인 그야말로 극한의 환경이다. 차가운 해풍과 함께 특유의 짙은 해무를 일컫는 카만차카의 영향도 같이 받는다. 토양은 프랑스 부르그뉴와 비슷한 석회질이 포함된 점토질이다.

마르셀로는 “넓지 않은 지역이지만 토질에 따라 세분해 재배하고 있으며, 총 18

개 구역 중 3개 블록에서 자란 사르도네이만 아멜리아 양조에 사용한다”며 “붉은 토양에 탄산칼슘의 파편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와인에 긴장감과 신선함을 준다”고 전했다.

아멜리아 사르도네는 100% 순수하게 즐기며 숙성한다. 본연의 산도를 가리지 않기 위해 잿산 발효는 하지 않는다.

2023년은 평년보다 좀 추웠다. 개화부터 수확까지 105일 걸렸다. 포도가 과하지 않게 익었고, 와인은 깔끔하고 정교한 풍미를 얻었다.

반면 2024년은 더운 해였다. 그래서 개화부터 수확까지 99일이면 됐다. 잘 익은 과실미가 와인에 그대로 반영됐고, 강수량이 적어 응축된 풍미와 힘 있는 사르도네다.

마르셀로는 “2023년과 2024년은 기후로는 크게 차이가 나는 해였지만 와인에서는 관통하고 있는 아멜리아적 특징을 느낄 수 있다”며 “한식에도 해산물 요리가 많은데 완벽한 페어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ahn1@metroseoul.co.kr



## 문화 단신

### 메가박스, 월드컵 등 콘텐츠 다변화 속도

북중미 월드컵 빅매치 극장 상영

메가박스가 월드컵 생중계와 공연 상황, 일본 화제작 등을 앞세워 극장 콘텐츠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메가박스는 단독 상영 브랜드 ‘메가온리(MEGA ONLY)’의 6월 라인업을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라인업에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생중계를 비롯해 쇼뮤지컬 실황 영화, 일본 영화, 버추얼 라이브 공연 실황 등이 포함됐다.

가장 주목되는 콘텐츠는 북중미 월드컵 경기 생중계다. 메가박스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경기를 포함한 주요 빅매치를 극장에서 상영한다. 오는 6월 12일 체코전, 19일 멕시코전,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전 등을 대형 스크린과 극장 사운드로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극장업계가 콘서트와 스포츠 중계 등 이른바 ‘얼터콘텐츠(Alternative Contents)’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메가박스 역시 월드컵을 통해 집관과 차별화된 현장형 관람 경험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공연 실황 콘텐츠도 강화했다. 6월 4일 개봉하는 ‘드림하이: 쇼뮤지컬 온스테이지’는 드라마 ‘드림하이’ IP를 기반으로 제작된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멀티카메라 촬영과 영화적 편집 기법을 적용해 공연 현장의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세븐, 선예, 강승식 등이 출연한다.

일본 콘텐츠 수요 공략에도 나선다. 메가박스는 24일 사카모토 유지 작가의 신작 영화 ‘짝사랑 세계’를 단독 상영한다.

영화는 세상과 이별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성장 판타지물로, ‘괴물’ 각본으로 칸영화제 각본상을 받은 사카모토 유지와 ‘꽃달걀 같은 사랑을 했다’의 도이 노부히로 감독이 협업한 작품이다.

버추얼 아이돌 팬덤을 겨냥한 콘텐츠도 준비했다. 27일 개봉하는 ‘볼택션 1st 라이브 다니미 볼트’는 일본 버추얼 라이브 그룹 니지산지 소속 유닛 볼택션의 첫 오프라인 공연 실황을 담았다. 메가박스는 대형 스크린과 입체 음향을 통해 현장감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영화 관객 감소와 콘텐츠 소비 방식 변화에 대응해 공연·스포츠·게임 등 비영화 콘텐츠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며 “메가박스의 ‘메가온리’ 역시 영화관을 단순 상영 공간이 아닌 복합 콘텐츠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롯데시네마, 단독 개봉 라인업 공개

극장 차별화 콘텐츠 ‘롯데시픽’ 맘보 점보·노트북 등 개봉

롯데시네마가 6월 극장가를 겨냥해 애니메이션과 로맨스, 게임 IP 기반 작품, 공포영화까지 아우르는 단독 개봉 라인업 ‘롯데시픽’을 28일 공개했다.

이번 ‘롯데시픽’ 라인업은 극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 콘텐츠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대형 상업영화 중심의 기존 극장 편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와 팬덤 기반 콘텐츠를 확대하며 관객 접점을 넓히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가장 먼저 관객과 만나는 작품은 오는 6월 3일 개봉하는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맘보 점보’다. 덴마크 동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마법 버섯을 먹고 거대해진 아기 하마의 이야기를 그린다. 독특한 상상력과 밝은 분위기의 스토리, 국내 성우진 더빙과 OST를 앞세워 어린이·가족 관객층을 겨냥했다.

이어 6월 4일에는 로맨스 영화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노트북’이 재개봉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라이언 고슬링과 레이철 맥아담스의 젊은 시절 모습을 다시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객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극장가에서 클래식 명작 재개봉이 꾸준한 흥행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향수 소비 수요를 겨냥한 전략으로도 읽힌다.

게임 IP를 활용한 콘텐츠도 포함됐다. 6월 14일 개봉하는 ‘DEAR MY HERO’는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첫



롯데시픽 라인업.

/롯데컬처웍스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다. ‘시그너스 기사단’ 신병 아이단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약 30분 러닝타임으로 구성됐다. 오랜 팬층을 보유한 게임 IP를 극장 콘텐츠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팬덤 기반 콘텐츠 실험 사례로 주목된다.

공포 장르 팬들을 겨냥한 작품도 준비됐다. 6월 24일 개봉하는 ‘패신저’는 ‘체인도’, ‘트루 사냥꾼’ 등을 연출한 안드레외브레달 감독의 신작 서스펜스 공포 영화다. 예고편 공개 이후 온라인상에서 높은 화제성을 기록하며 장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6월 극장에서 다양한 장르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독 개봉 라인업을 구성했다”며 “오직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 경험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허희경, 첼리스트 박찬영과 듀엣곡 발매

새 디지털 싱글 ‘얼마나 좋을까’ 오는 7월 단독공연 개최 예정

싱어송라이터 허희경이 독보적인 음색과 깊이 있는 첼로 선율이 어우러진 새 싱글을 발표하며 초여름 가요계에 새로운 감성을 더한다.

소속사 (주)문화인은 28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디지털 싱글 ‘얼마나 좋을까 (feat. 박찬영)’를 발매했다. 이번 신곡은 연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풋풋한 설렘과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섬세한 가사로 풀어낸 곡이다. 이번 싱글은 허희경의 산뜻한 음색에 첼리

스트 박찬영의 깊은 저음 연주와 목소리가 더해진 듀엣곡 형태로 완성됐다.

여기에 실력과 뮤지션 제휘와 이의광이 작곡 및 편곡에 참여해 재치(Jazzy)한 무드를 연출했으며, 따뜻한 플루트 선율이 조화를 이뤄 한층 포근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지난 2021년 싱글 ‘아무것도 상관없어’로 데뷔한 허희경은 ‘김철수 씨 이야기’, ‘그렇게 살아가는 것’ 등 진출한 서사를 담은 곡들로 리스너들의 공감을 얻어왔다. 올해 초 싱글 ‘이런 사람 되어버렸네’를 발매하는 등 꾸준한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신곡 발매와 더불어 허희경은 오는 7월



싱어송라이터 허희경.

/문화인

4일과 5일 양일간 서경대학교 메리홀에서 단독 공연을 개최하고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최규춘 기자 ch9720@

## 메트로 한줄뉴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익구,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사진 뉴시스  
▲종합특검, 채상병 의혹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조사

▲건물주 몰래 계약 관리하다 수천만원 빼돌린 업자 징역 1년  
▲타워크레인 노조 총파업...양대노총 “생존·안전 위한 외침”

▲검찰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피해자에 무형의 처분...43년만  
▲교육부 “수학여행서 사고나도 중과실 아니면 교사 책임 안물어”



유통가  
K자형 양극화  
장기전략 시급  
04



Life

MG재단  
장애가족에  
희망 전달  
L2



# 끊임없이 이어지는 초록빛 숲길... '자연'을 이웃으로 품다

## 아파트의 미학(美學)

###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셰이드

경강선 이천역에서 버스로 3분가량 이동하면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셰이드'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온다. 단지가 위치한 이천 중리지구는 초등학교·근린공원 부지 조성과 함께 약 4200여 가구 규모로 계획된 택지지구다. 원도심과 가까운 기존 생활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리지구 일대는 공사 현장과 입주 앞둔 아파트가 많아 분주한 분위기였다.

중리지구 인근에는 이천시청, 이천경찰서, 이천세무서 등 주요 행정시설이 위치해 있다. SK하이닉스와 OB맥주 등이 가까운 직주근접형 아파트다. 반도체 호황으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배후 주거지가 주목받으며 이천역과 중리지구 일대 부동산 시장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우미건설과 부원건설이 시공한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셰이드는 지하 2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 총 849세대 규모로 지어졌다. 경강선 이천역을 통해 판교·분당·광주·여주 등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서이천IC과 이천IC를 통한 광역 교통망 이용도 가능하다.

지상에 차 없는 보행 환경과 조정 공간을 조성하고 지하 주차장에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과 실내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비롯해 남녀 구분 독서실과 작은 도서관,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가 마련돼 있다.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셰이드 단지에서 가장 매력적인 조경 요소는 숲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동선이다. 단순히 건물 사이에 녹지를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민들이 단지 곳곳을 걸으며 자연스럽게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곧게 뻗은 길도 있지만 꼬불꼬불하게 이어져 시야가 한 번에 열리지 않는 길이 많다. 나무와 수풀 사이를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풍경이 하나둘 나타난다. 길목마다 벤치가 놓여 입주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낮은 관목과 키 큰 나무가 층층이 이어져 실제 숲 안을 걷는 듯하다. 아파트 단지보다 작은 공원이나 수목원을 걷는 경험에 가깝다.

'목백합 숲길'에는 울창한 나무 사이로 붉은 벽돌 산책로가 이어진다. 곳곳에는 산책길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 아기자기한 조형물이 배치돼 있다.

목백합 숲길은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따뜻한 봄에는 튤립 모양의 꽃이 피고, 늦가을에는 노랗게 물든 단풍이 숲길을 채운다. 산책로 양옆으로 높게 자란 나무들이 시야를 감싸고, 길 끝에는 이 공간의 이름을 딴 목백합 나무가 자리한다.

단지 중앙으로 들어서자 커다란 연못과 석가산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잔잔한 수면 위로는 아파트 외벽과 조경수가 비친다. 연못에는 왕부들, 물억새, 꽃창포, 물칸나 등 다양한 수생식물이 살고 있다.



다양한 식물들로 꾸며진 중앙연못과 티하우스. /성채리 인턴기자

### 이천 중리지구... 구도심 인프라 풍부 끊임없이 숲길로 연결되는 조경 조성

### 울창한 나무와 아기자기한 조형물 배치 단지 중앙 대형 연못·석가산으로 꾸며 다양한 수생식물로 다채로운 풍경을

### 동화 속 세계 연상시키는 '팽나무 숲' 칠엽수 넓은 그늘 아래 운동시설 배치 운동-산책 경계 없는 하나의 '쉼'으로



중앙연못과 석가산.



아기자기한 조형물로 꾸며진 숲길.

연못 가장자리에는 계곡물을 옮겨놓은 듯자갈과 바위가 자연스럽게 놓였다. 석가산 사이로 흐르는 물길은 단지 안에 또 다른 풍경을 만든다.

중앙에 마련된 티하우스는 이 공간의 분위기를 완성하는 요소다. 입주민들이 티하우스 안에서 연못과 수생식물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다. 창밖으로는 잔잔한 물결과 조경이 펼쳐지고, 높은 소나무와 석가산이 어우러진다.

아파트 조경은 단순한 조망 요소를 넘어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이다. 물과 숲, 쉼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정원을 만들었다는 느낌을 줬다.

단지 한편에는 동화 속 세계를 연상시키는 '팽나무 숲'이 조성돼 있다. 산책길을 둘러싼 커다란 팽나무는 둥글고 넓은 수관을 만들어 그늘을 드리운다. 예부터 팽나무는 마을의 비보림이나 방풍림, 쉼터 역할을 위해 심어졌다고 한다.

중앙에는 곡선형 산책로가 이어지고, 곳곳에 알록달록한 벤치와 테이블이 있다. 토끼와 나비 조형물도 더해져 판타지 소설이나 동화 속 숲길을 걷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칠엽수 운동숲길'도 조성돼 있다. 무더운 여름철 넓은 그늘을 만드는 칠엽수 아래로 산책로와 운동시설이 이어지는 구조다.

운동기구는 한곳에 모아놓지 않고 산책길을 따라 분산 배치했다. 입주민들이 걷다가 자연스럽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설계다. 운동과 산책, 휴식의 경계를 흐리며 일상 속 가벼운 움직임 자체를 하나의 쉼으로 연결한 모습이다.

단지 커뮤니티 시설은 지하 2층에 집중 배치됐다. 단지를 활용해 외부 산책로와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만 지상 공간의 개방감도 느낄 수 있다.

이곳에는 어린이집과 에듀센터를 비롯해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섰다. 특히 주민카페 내부는 우드톤 인테리어와 간접 조명을 활용해 작은 북카페 같은 분위기로 꾸며졌다. 창밖으로는 단지 조경이 그대로 이어진다.

커뮤니티 시설을 한 공간에 모아둔 점도 특징이다. 아이 돌봄과 학습, 휴식 기능이 한 동선 안에 연결되면서 입주민 입장에서는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조경에서 단순 면적이나 커뮤니티 경쟁을 넘어 '어떤 일상을 제공하는가'가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셰이드는 숲길과 연못, 테마 정원과 커뮤니티를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하며 자연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끌어 들였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이란 “美 공군기지 표적 타격, 결과는 침략자 책임”  
▲“이란 공습 능력 강화” 이스라엘, 새 공중급유기 취역 /사진 뉴스스

▲中 충칭시 서열 2위 ‘후형화’, 부패 혐의 연루돼 사임  
▲“뇌졸중인 줄”...질 바이든, 대선 토론 당시 심경 고백

▲네덜란드 무역장관, 7월 방중설...반도체 갈등 주목  
▲2027년 가장 덥다...세계기상기구 “지구 평균 기온 최고치”

#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공식 = AI + BIO

LG의 AI·BIO 융합기술은 암,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질병의 정밀진단과 신약개발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여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 미래, 같이

시로 세상을 미소 짓게 하는  
미래가치를 만듭니다

